朝鮮日報
夕刊
十一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中國共產黨委員會
支那赤化宣言
國府沒落을契機로

【東京電話同盟】漢口陷落을目前에두고 國民政府의 重慶移轉은 그地理的關係로 今後蘇支關係는 益益緊密化하고 國府內의共產黨勢力은 增大되야 支那赤化의魔手가 跳梁할것으로 憂慮되는데 十日確實한側에의 情報에依하면 最近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에서는 抗日民族抗戰의 擴大强化와 自由民主主義的支那의建設의슬로간미테 支那赤化의積極的運動에邁進할것을宣言하고 이에對하야 莫斯科의 콤인테룬 執行委員會幹部會는 中國共產黨의 前記聲明을 是認하는 同時에 對支援助의 積極化方針을 콤민테룬世界各支部에 向하야 指令、各種의 排日運動對日뽀이코트등을 益益煽動하려는事實이 暴露되엿다 國民政府의沒落을 틈타서 支那赤化를 企圖하는 콤인테룬의 破壞工作은世界平和를 爲하야자못 憂慮할일로 今後益益警戒를 要하게되엿다

國共合作에反對 蔣에意見書提出

【上海十日發同盟】最近香港方面으로부터 香港經由上海에 潛入한 各種分子는 相當한數에達하는데 其中藍衣社CC團等 國民黨靑年分子一部는 八、一三記念日의 上海市內擾亂計畫等과 全然關係가업고 蔣政權의 國共合作政策에 反對하야 秘密裏에漢口를脫、出上海에와서 蔣介石에게 重要意見書를 提出한事實이 判明되엿다 그들은 武漢共產黨의 態度에 憤激하야 熱烈한國民黨員으로서 蔣에提出한 意見書는 如左한것으로 國共合作의 龜裂을 如實히보혀주고잇다

民國十五年黨成立以來 國民黨第十次民衆으로서 淸黨工作의 犧牲이된者만하라 客年事變發生以來 本黨은對外一致必要上共產黨과 合作하엿스나 共產黨은 漸次毒牙를 내밀어 公公然히 國民黨을 排擊하기시작하엿다 이痛苦에 對하야本黨同志는 抗戰의勝利를 퇴하기爲하야 忍耐할수업는것을 忍耐하여왓스나 我等은 三民主義破壞를 直視할수는 업서서 이에 漢口를 脫出하야 이意見書를 提出함에이르는것이다

廣東高角砲陣地와
增步軍需工場爆擊
我海荒鷲群의猛活躍

【上海十一日發同盟】十一日正午 艦隊報道部發表

昨十日海軍航空隊는南支方面에서 左記와가티 攻擊하엿다

一、粤漢鐵道西村驛附近에서 軍用貨車群을爆擊하야 十數輛을 爆破하엿다

二、增步軍需工場을爆擊하야大工場數棟을爆破하엿다

三、廣東市外高角砲陣地를爆擊、直擊彈에依하야 多大한損害를 주엇다

揚子江方面에서는 鄂城下流에서 湖軍型水雷艇(約百噸)一隻을爆沈시켯다

海荒鷲廣東市爆擊

【香港十日發同盟】我海軍機는十日午後一時頃 西村上空에나타나 粤漢線路及驛構內建物을 爆擊하고 一部는 豪雨를무릅쓰고 廣東市를 爆擊하엿다

九江附近殘敵을掃蕩

【九江十日發同盟】九江附近殘敵掃蕩中의○○部隊一部는 揚子江에 沿하야 크리크를 거슬러올러가서 所在의敵을 掃蕩하면서 十日 九江西方○○地點을 占領確保하엿다

駐蘇支那大使에
陳友仁任命說
蘇支關係緊密化策으로

【上海十日發同盟】香港으로부터의 支那側情報에 依하면 歸國以來 오래동안 香港에 蟄居中이던 前外交部長陳友仁은 突然 今明日中에 漢口로가서 蔣介石을 會見키로되엿다 이는 方今缺員中인 駐蘇支那大使에 任命될 前提라고 傳하는데 前大使蔣廷黻의 後任으로서 陳友仁을 起用함은 極히 興味잇는일로漢口陷落을 압두고 支那의 對外關係에 重大變化를 豫想케된다 特히 蘇支關係가 新段階에 들어간때인만큼 曾經赤色武漢政府의 外交部長이던 陳友仁으로하여금 赤色露西亞와의 連繫를一層緊密化시켜 蘇聯의軍事上의援助를 增大코저하려는것으로 보인다

米大使죤슨氏 九日重慶에到着

【香港十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去三日米砲艦루존號로漢口를出發한 米大使죤슨氏는 九日朝 重慶에到着하엿다

聞喜서死의籠城 森本部隊吉川中尉談

【北京八日發同盟】五月中旬부터 約五十日間悲痛을極한 聞喜籠城을繼續한 森本部隊의 吉川鷹雄步兵中尉는 七日北京着 九日午後七時四十分부터八時까지 日滿兩國에對하야『死의籠城』을 放送하기로되엿는데 八日放送을압두고 눈물을흘리며 悲痛한籠城을 다음과가티말하엿다

聞喜의周圍에는 多數한高地가잇서 連日連夜그곳으로부터砲擊이잇서 砲聲이 들리지안는날은 籠城五十日을通하야 닷세가령으로 夜間은 特히甚하엿다 이便은 少數인데 敵은 約二十倍로 一萬이 넘는 우에 友軍과의連絡은 全혀 杜絕되여잇스므로 糧食도 彈藥도업서 文字그대로 決死的 籠城이엿다 運城의 ○○部隊長으로부터『彈藥食糧缺乏』에 不拘하고 連日의 御奮鬪를感謝한다 食糧이떠러진때에는 軍馬를 죽여서먹어라』라는 電報까지바덧스나 生死를가티하든 軍馬는차마죽일수가업서『城內에는 아직犬猫가잇다 安心하기바란다』라返電한後 約二十頭의軍犬을잡어 끌여먹엇다 이窮狀을敵에 알어챈모양으로 三四米間에 對峙하고잇는 敵陣으로부터 큰소래로『食糧떠러저서 困難하지 인제는 歸順하는것이 어떠냐 小銃을 가지고오면 百元을 내여주고 一日 一人一元식 줄테다』하는等 支那語로 소리처왓다 이쪽도 지지안코 通譯을通하야『우리는 飛行機로 食糧을投下하여오기때문에 조금도 걱정업스나 너희들은 蔣介石에게 利用되고 잇는것이다 戰爭을 구태여하는것이 어떠냐』고 한즉『참말 食糧이 供給되고 엿는가 부럽다』고하여왓다 山瀨飛行部隊의 救援은 實로 感謝하는바로 彈藥을잔뜩 실어다주엇다 그러나 食糧은 만치못하며 地上에떠러진 쌀알을 한알두알씩 주어모아서 겨우 밥을할여 重傷患者를먹엿程度이엿다 高射砲陣의 彈雨中을 文字그대로 決死的으로 輸送하여준 飛行機모양을 보고 우리는 合掌코 感謝하엿다 戰鬪는晝夜를 不拘하고 繼行되여 兵士는疲勞와 睡眠不足과 給與가 조치못한때문에 눈이어두워진者도잇섯다 그래도 참으로 勇敢하게싸워주엇다 七月三日뜻밧게 猛然한爆音이 들려왓다 무슨일이 생겻나하엿드니 敵이坑道를들고 재여논地雷때문에 城壁北角이 約三十米가령爆破되엿다 그곳으로부터 猛烈히突擊하여왓스나 我軍은 再三이를 擊退하엿다 七月五日運城曲沃方面으로부터 友軍이 進擊하여오때문에 包圍를깨트리고 우리는 뛰여나와서 友軍과握手할때에는 말도못하고 손을쥐고 언제 痛哭하엿다 當時를생각하면 至今도 가슴이막막하다

軍需物資徵發로
湖南省奧地住民飢饉

【上海十日發同盟】지난三日九江方面의 我占領地域內로 逃亡하여온 湖南省奧地의 官吏楊某의 말에 依하면 湖南省一帶는今年은 一般으로農作物은 豊作이나 東北部地方特히 洞庭湖를 中心으로한 長江一帶의低地는 洪水때문에 民衆은 住宅을 잃엇을뿐만아니라 物資는軍隊에게 徵發되여 飢餓에瀕하여잇다고한다 또巨二師及機械化部隊의駐屯地로되여잇는 湘潭附近을爲始하야 軍의亂暴狼藉는그極에達하야 物資의 徵發뿐아니라 靑年男女는 軍事訓練이란 名目下에續續徵發되고잇스며 涂炭의苦에헤매이는 難民은長沙、常德其他市街에 乞人이되여 橫行하고잇다고한다

我海荒鷲隊 邑江口爆擊

【香港十一日發同盟】我海軍航空隊는 十一日朝文復豪雨를 무릅스고 粵漢鐵道邑江口를 爆擊、多大한 損害를주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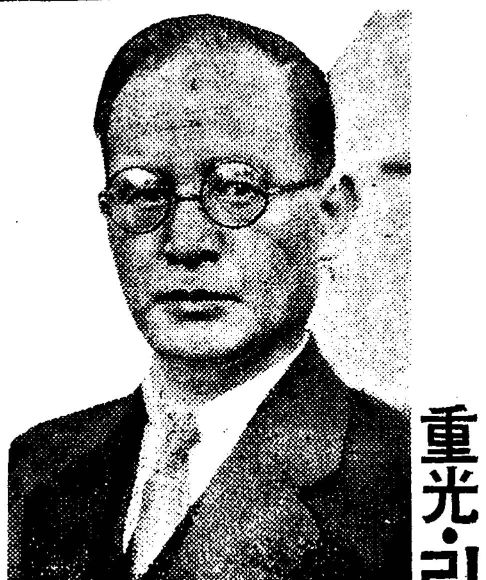
滿洲國臨時爲替局 十日부터開局

【新京十日發同盟】臨時爲替局은 田中中銀總裁를 兼任局長으로各部制를 定하고 各部長을 任命 十日開局、十二日부터 事務를開始키로 되엿다 그리고 經濟部淸水金融司長、關東局今吉司政部長兩氏는 現職대로 參與로 任命되엿다

第二回論功行賞
勳章傳達式

【東京電話同盟】賞勳局에서는十日午後二時부터 總裁室에서 下條總裁以下 局員課長等出席하야 去月二十八日에 發附가게시옵신 支那事變第二回論功行賞의 恩典에洽한兒玉中佐以下 陸軍二千三百六十名 海軍六十六名의勇士에 勳章、勳記、功記及附狀傳達式을執行하엿다 그리고右勳章은 近日中에 陸海軍으로부터 이를勇士의家族에 傳達될모양이다

張鼓峰事件
停戰協定遂成立
重光·리兩氏第三次會談結果



【莫斯科十日荻野同盟特派員發至急報】重光駐蘇大使는 十日午後 리트비노프 外務人民委員과의 間에 張皷峯事件에 關한 第三次會談을하엿는데 午後十時에 이르러 드디여 兩者間에 停戰協定이成立되엿다 (寫眞은 重光、리兩氏)

【東京電話同盟】十一日朝 外務省에 達한 公電에 依하면 十日 莫斯科에서의 重光、리트비노프 第三次會談에서는 三時間동안 會談한結果 蘇聯側은 漸次日本側 提出具體案에 接近하야 停戰에關한 具體案이 成立되엿다 右協定은 十一日中에 行할 豫定이다

【莫斯科十日荻野同盟特派員發】重光駐蘇大使는 十日午後七時 外務人民委員部에 리트비노프氏를 訪問、前回의 會見에 繼續하야 張鼓峰事件에關하야 第三次會談을 開始하엿다 席上重光大使는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現地의 日蘇兩軍戰鬪行爲停止에 關한 新提案을 提示하엿든바 蘇側도 이에 對하야 漸次接近하야 이에 停戰에關한 兩者의 意見이 드디여 一致되엿다 會見은 午後十時終了 右停戰에關한 確定案은 十日夜中에 完了될形便이다

第三次會談內容 AP莫斯科電報

【紐育十日發同盟】十日紐育에 達한 AP莫斯科電報는 張鼓峰事件에 關한 重光、리트비노프 第三次會談內容에 關하야 如左히 報道하고잇다

信憑할만한側으로부터 確聞하건데 十日의 重光、리트비노프第三次會談에서 重光大使로부터 新休戰案을 提議한바 리트비노프委員도 이를 受諾하야 滿蘇國境에서의 日蘇兩軍의 暫定的 停戰協定이 成立되엿다 右協定은 卽時實行으로 옮겨질豫定이다

陸續來襲하는
蘇軍을應戰擊退
十日夜까지의戰況

【東京電話同盟】陸軍省十一日午前十一時三十分發表

一、五二高地方面의 蘇聯軍은昨十日 日沒後 攻擊前進하야我陣地前 百五十米에 接近하여 왓스므로我方은이를擊退하엿다 今朝彼我는 三百乃至四百米距離에서 서로 對峙하고잇다

二、張鼓峰南側 蘇聯軍은 昨夜十二時頃 攻擊前進하여와서手榴彈을 投擲하엿스나 이를擊退한바 今朝에 後退하엿다

三、沙草峰方面의 我右翼은 昨夜에 逆襲을바덧스나 이를擊退 蘇聯軍은 陣地前二百米에 停止하여잇다 그兵力은 機關銃及 步兵砲를가진 約一大隊이다 左翼에서는 約一千米를 隔하고 昨夜는 平穩하엿다 昨日午後七時頃 蘇聯攻擊機十二機는 水流峰에 對하야 對地射擊을 行하엿다

杉村駐佛大使
본네外相과懇談
張鼓峰事件等에關해

【巴里十日發同盟】杉村駐佛大使는 十日午前 佛國外務省으로본네外相을 訪問하고 張鼓峰事件을 圍繞한日蘇紛爭 日支事變其他現下 政局問題에 對하야 여러가지로 懇談하엿다 그리고 본네外相은 九日웰첵코 獨逸大使와도 會見하엿는데 룬시맨氏의 프라하行에 關聯하야 체코問題에 對하야 意見交換을遂한模樣인바 一部에서 傳하는바와가티 張鼓峰事件 其他極東問題에는 言及지안흔模樣이다

倫敦外交界安堵
日蘇停戰協定成立報에

【倫敦十日發同盟】할리딱스外相은 十日午後三時 首相官邸로 체임벌렌首相을 訪問하고 極東問題其他 國際情勢에 對하야 長時間 懇談을하엿는데 十日深更에 이르러 莫斯科로부터 停戰協定成立의 報道가 傳하게되여 倫敦各紙는 모두十日附朝刊에 大大的으로 揭載하고잇다 勿論 國境의 劃定에關한 交涉은 前途에 相當한困難을 免치못할것이나 危機는 爲先 解消되엿다고 보며 倫敦外交界도 安心하는모양이다

電力評價審查委員會
第一回總會開會

【東京電話同盟】電力評價審查委員會第一回總會는 十一日午前九時四十分부터 遞相官邸에서 開會、會長永井遞相以下各委員及幹事等出席 今後의 評價方針審議順序等에 關한 協議를하엿다

肅淸工作에反比例
蘇聯高官暗殺頻數

莫斯科로부터當地에 達한情報에依하면 蘇聯內의 血의肅淸工作深刻化에 正比例하야 當局者에對한 地方高官의 暗殺事件이 頻繁히 發生하고잇다 最近의 例로는 元海參威게·페·우局長官코르긴도스(蘇聯極東地方게·페·우日本部長)은誕生五十年記念으로 同地의 도스트러스트로부터 特製卷煙草가 왓는데 開封과 同時에 爆發되여 頓死하엿다 이때문에 트러스트代表를 爲始하야 工場員六十名이 暗殺犯人으로 逮捕되여 近近裁判에 回附될터이다 그리고 압서는 키엡軍管區軍檢事 자루우신中將이 部下將校에게 殺害되엿고 듀르코맨共和國最高指揮者 보보카르프도實弟와함께 復讐의 犧牲이되엿스며 라잔스케州에서는 區執行委員會議長及 吏員五名이 一齊히 暗殺된事件이잇섯다 其他 群小暗殺事件은 이로 枚擧할수업스며 政府當局의宣傳에도 不拘하고 國民과 指導階級의 反目隔絕은 益益 深刻化하고잇다

定例參議會

【東京電話同盟】十一日의 定例參議會는 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서開會 郷、松岡參議를除한 各參議와 政府側으로부터 近衛首相、風見書記官長等이 出席하야 大野理財局長으로부터 支那法幣問題에 對하야 說明이잇슨後 書記官長으로부터 十日莫斯科에서의 重光、리트비노프第三次會談을 行한旨를報告하고 諸種意見交換을 遂하고 午後零時十分散會하엿다

漢口支持困難說은
或種의策略的意圖

【上海十日發同盟】支那共產黨首領으로 游擊戰의 指導者이고軍事委員會政治部副部長인 葉劍英은十日突然共產黨機關紙新華日報紙上에『漢口는 지탕키어렵다』라고 表하야 非常한 興味잇는 論文을 發表하엿다 이論文에依하면『日本陸軍이 長江南岸으로 進軍하면 揚子江의 汜濫과 天嶮의險인 兩岸地形에 阻止되야 가장重要한 機械化部隊의 進擊이 極히 困難하게되야 漢口를進攻키는 不可能하다 萬若海軍이 增水를利用하야 迅速히 溯江進擊을 行한다면 漢口攻略은 可能할것이라고하며 이에 陸軍部隊가 協力하야 兩岸各處로부터 上陸하면서 進攻한다면 漢口는當然陷落될것이다』라고하엿는데 漢口死守를 絕叫하고蔣介石을 이끌어오든 共產黨의 指導的委員의 입으로부터 一變하야如斯한意見發表가잇게된것은 某種의 謀略的意圖에서 나온것으로 觀測되며 그眞意가 那邊에잇는지 各方面으로부터 警戒的意味로써 觀測되고잇다

時事解說
英獨과 蘇聯關係

[illegible] 張鼓峰事件에關한 一米紙의見解를보면 今番事件을 이르킨 蘇聯의目的은 漢口攻略을目睫에둔日本軍의對支軍事行動을 牽制하려는것이 分明한데 西方에서 [illegible] 蘇聯을 威脅하고잇는 [illegible] 어 마춤 체코問題로因하야 英國에게抑壓되여잇는때문에 絕好한牽制의機會라고 論하[illegible] [illegible] 체코內政에 干涉하려는 [illegible] 체코를 [illegible] 라고 論評[illegible] [illegible] 스스로 [illegible] 할수가업다。

◇ 체코問題를 解決하고서 [illegible] 政府의 [illegible] 체코政府와 [illegible] 今日까지의 [illegible]

◇ 蘇聯은 從來 英[illegible] 努力하[illegible] 어 [illegible] 이다。 [illegible] 따라서 蘇聯 [illegible] 英獨關係의 [illegible] 對支援助問題 [illegible] 英蘇가 極東에서 一 [illegible] 取하게된다면 이것은 한個의 奇現象이며 同時에 極히 注目되는바이다。

荒木文相 近衛首相과會見

【東京電話同盟】荒木文相은 十一日午前八時半 近衛首相을 荻窪[illegible]에 訪問 [illegible] 報告하며 當面[illegible]에 關하야 [illegible] 交換하고 同十時지나 [illegible]하엿다

定例三相會議

【東京電話同盟】十一日定例三相會議는 正午부터 首相官邸에서 行하야 近衛首相 宇垣外相 池田藏相出席、外相으로부터 十日莫斯科에서의 重光、리트비노프第三次會談의 經過報告가 잇슨後 今後의 方針에 對하야 協議를 거듭하고 다시 對支諸問題에關하야 意見을 交換한後 一時五十分 散會하엿다

人事·集會

▲西本計三氏(總督府商工課長)渡東中十一日午後一時三十五分京城驛着歸任

八面鋒

◇ 滿洲나 北支가는 사람들은 대개 엇게 評價하는것이 普通。

◇ 或은 阿片장사 或은 게집장사 或은 密輸業을하니 그리 批評할도 當然。

◇ 그러나 朝鮮서 業을 일코 新天地에서 新職業을 엇자하며 아무리 新開地인들 쉽게 業을 잡을수도 업는일。

◇ 農事를 제어라고 奧地에 보내나 언제본 農事를 쉽게지을수도 업는일。

◇ 情景을 생각하야 漸次로 善導함이 得策이 아닐가。

◇ 一部에서 白米食廢止運動擡頭。

◇ 白米는 東洋人의 常食、이것을 버리고 무엇을 代食하잔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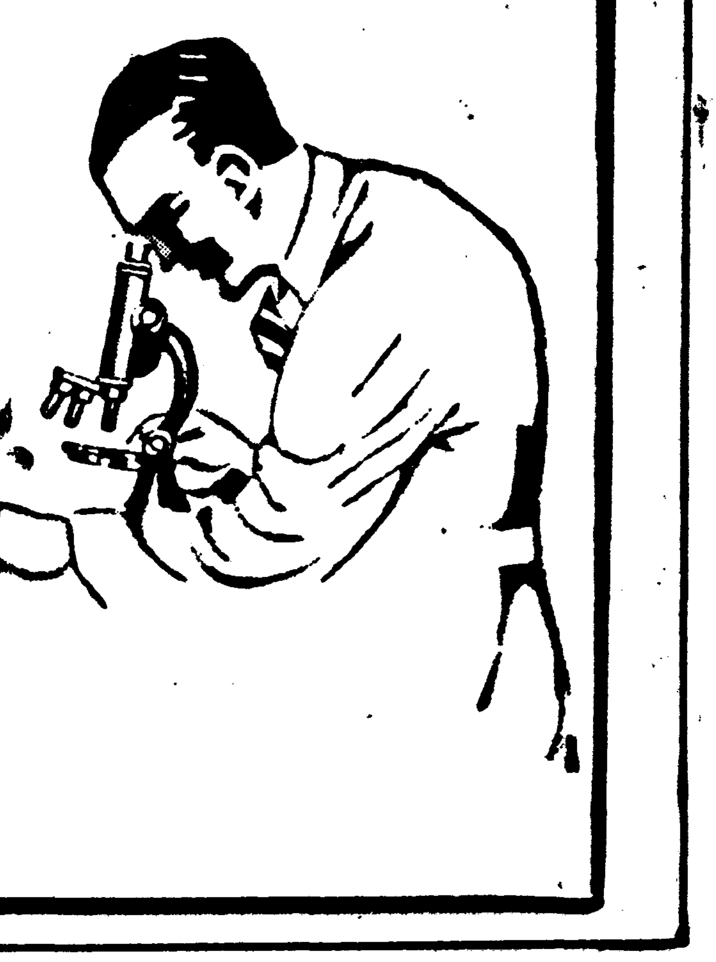
◇ 麥은 國際商品이니 食糧問題로서 더욱 問題、갑가、조等은 習慣이 안되어 問題。

◇ 그뿐아니라 米의 消費가 적어지면 農夫의 收入이 줄어들지안는가。

◇ 產米增殖計畫을 써서 東洋人의 糧食은 白米라는 傳統을 지킴이 可。

003013

虎列刺와赤痢



防疫戰線에異狀있다!

虎列刺豫防訓鍊에 完璧을 期하였다고 放心하지마시오。菌敵은 意外한 곳에 나타났읍니다。岡山、若松、福岡、門司 奉天等地를보시오。上海에서 發源한 虎列刺菌이 來襲하였읍니다。그러나 大砲、機關銃、탕크、重爆擊機와 같은 威力을가지고 菌敵을 물리칠수있는 アリヂンB가 여기나왔읍니다。

アリヂンB란 무엇?

藥學博士 加來天民先生은 京城帝國大學藥物學敎室에서 多年間 腸內殺菌劑에對한 研究를 繼續하여오든中、虎列刺菌을 十五分乃至三十分안에 完全히 殺滅식히는 アリヂンB라는藥을 創製하야世界學界에 一大衝動을 이르켜었읍니다。本社에서는 目下 國民保健上의 一大危機에 直面하야 이러한 劃期的研究에 滿腔의喝采를 表하는 同時에 이象牙塔속의 研究結果를 大衆化하야널리 世上에 보내게된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는바입니다。

其外에 赤痢菌、腸窒扶斯菌、「파라지브스」菌도 二十四時間안에 殺滅식힙니다。

包裝價格
二〇球入 ·九〇
五〇球入 二·〇〇
一〇〇球入 三·四〇

全國有名藥店에서팝니다

京城府禮智町
製造元 天一製藥株式會社
發賣元 天一藥房

アリヂンB

經濟戰强調週間實踐要項

生活刷新·廢物愛護·貯蓄奬勵等

총독부에서 물자절약, 자원애호 재종 전시경제강화를 일층강화 철저하기위하야 오는이십이일부터 이십팔일까지 일주일간을전조선일제히 경제전강조주간(經濟戰强調週間)을 실시하기로결정한후 이미각도에 그구체적요항을 통첩하얏거니와 이에대하야 총독부에서는 실행할요건 그실천요항을 다음과가티 발표하얏다

一、물자의소비절약
(가) 고무와 피혁제품의신조(新造)를유예할것
(나) 의복의신조를유예할것
(다) 금속제품의신조를유예할것

二、물품의애용
(가) 가구、농구(農具)기타일용기구類의 손질을 잘할것
(나) 「아깝다」는 관념을 강화할것

三、폐품의 이용과 회수
(가) 폐품의 이용가치에 대한인식을 기피할것
(나) 폐품사장(死藏)또는 소각(燒却)하지말고 고물상에 불하할것
(다) 폐품의 회수를용이히하기위하야 되도록 폐품의 종류별로 정리를하야둘것

四、저축의실행
사변에 의하야 또는 근로의 증가등에 의하야 수입이 증가된것과 소비절약과 생활개선등에 의하야 절약한것으로 두 저축하거나 또는 이것으로써 공채를 구입할것

五、생활쇄신
(가) 연회를유예할것
(나) 전반적으로는절주(節酒) 금연하되 각단체는 금주금연등을 실행해도 조타
(다) 식사기타를 간소하게할것 (예를들면 총독부 식당에서는 주간중은 김치에주먹밥만 판매하고 청내매점에서는 과자연초 기타 기호품가튼것은 주간중안 판매치안는다)
(라) 관혼상제의 절차를 간소히하는등 경조상문의금품증정의정도를 이하하는등시에 경조의의봄을 할거리에하야 그것을저금할것
(마) 축기(祝旗)회화의 제한
(바) 기념품증정을 폐지
(사) 모든회합시간의엄수

六、물자통제의 의의에대한인식
매점(買占)매석(賣惜)을 못하도록 가격 등통제의 의의를 철저히하야 협력할것

七、생산의증진
생산확충 근로봉국의 사상을 앙양하야 근로시간의 연장 휴일의 폐지등에대하야 다시연구하야

八、근로봉국사
생산의증진을 표방할것
주간중에 학생의 근로봉국대의 외로 각부락의 애국일과 근로봉국대의 봉사를 철저히 시킬것 (봉사사업에 대한 행사를 어예로 당하야도 조타)

北鮮線運轉狀況

十一日午前 鐵道局發表

십일일 오전 철도국에서 발표한 북선(北鮮)선 실정현재의 북선열차운전상황은 이러하다

▲남양(南陽)청진(淸津)사이는 평소대로 각열차를 운전하는중 이며 ▲남양 아오지(阿吾地)사이는 운전하던 친선 설선이열차와 도문(圖們)나진사이를 운전하는 신설 열차이외 회령(會寧)나진사이를 운전하던 이십열 어신이열 차와 도문나진사이를 운전하던 이십열차만 운전하고 잇는중이다

▲남양 나진사이는 종래에경성나진사이를 운전하던 오백칠 육백열차의 운전을 쉬게되엿슴으로 그두열차는 도문의올 객여운전하고있다

▲제오백칠열차는 남양서 열차시간에 떠나서 웅기(雄基)에 선 십오분에 도문에 도착하며

▲제오백팔열차는 도문서 십일시삼십오분에 떠나서 신경 사십분에 도문에 도착한다

▲신경(新京)나진사이의 제어백일 이백이열차는 도문까지되도록 운전하고잇는중이다 따라서 이백일열차의 청진행연락객은 도문에서 바꾸어타기로되엿다

[illegible]

外國品의輸入은 爲替許可만必要

臨時措置法을다시改正하야 明十二日부터實施

전시체제하의물자수급을통제하기위하야 작년시월에 총독부령으로 제일백오십삼호로써 발포한수출입품등임시조치법(輸出入品臨時措置法)의규정별표에잇는 갑호(甲號)와 정호(丁號)를폐지하야 종래외국물품수입에 외국위체(爲替)허가와 수입허가를 아울러바더야되든것을 위체허가만으로써 수입하도록 개정하야 명십이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엿다 종래는 위체관리법(爲替管理法)과 수출입품등임시조치법 두가지법을 병용하야 두가지의허가를 요하야왓스나 이번에이것을 개정하야 위체관리법위반의혐의한위체허가만으로써 수입을 할수잇도록되어서 판게업자의 수입허가수속등은 일주간 이화하야 사무의 원활을 기하게되엿다 그리하야 이들갑호에해당한물품의 수입에 관한위체허가신청의 허가여부는 물자의배급통제 판매통제 혹은사용제한 등의판게도 잇스므로 총독부판계과에서는 밀접한 연락을도모하야 처리의만전을 기하기로되엿다 그런데 이총독부령의백오십삼호는 작년시월 실시의발포당시로부터 현재까지 전후팔회를이미 개정하야 그내용이자못복잡다단하므로 이번에 갑호와 정호를 폐지함과동시에 전부 수정하야 정문의 개정을 단행하기로 되엿다

道聯盟續續結成

陣營整備되는國民精神總動員聯盟

全面的活動段階에

정신총동원충청남도연맹(忠南聯盟)결성식은 십이일오후 한시부터 대전신사(大田神社)에서 관내 각군연맹십오개기라 각종단체이십개의참가와 조선연맹총재대리 윤치호(尹致昊)씨 임석하에거행하기로되엇다 또전라북도연맹(全北聯盟)은 십오일오후 두시부터 전주공립소학교(全州公立小學校)에서 결성하기로 되엿스므로 여기다가 이미 결성된 경기、전남、경남、황해、강원도 등각도를 합하면 칠개도 연맹에 달한다 그리고평남 경북충북등 삼개도는 팔월하순까지평북함남 함북등삼개도는 구월상순까지 각각전부 결성할예정이고 또전조선각도각부락 연맹의 결성도 구월중순까지에는 전부 결성을완료하게되엿다 그리하야 조선연맹으로부터도、부、군、부락연맹까지 전부완전한 결성을보게되엇스므로 종횡으로 계통잇는 조직하에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전면적활동을 마침내개시하게되엇다

痴情의"함마"

姦夫를殺害未遂코 鐵窓에서怨恨淚

양평군양동면고송리(楊平郡楊東面高松里) 박윤필(朴允弼)의집에 묵고잇던 노동자 김선길(金先吉)(二○)은 가튼동리 주오만(朱五萬)(三○)이가 자기처 김씨(金氏)(二○)와 정교를하야잇는데분개하야 죽여버릴야고 칠월하순 그의 잠든틈을타서 체정의쇠마치를들어 머리를갈겨빈사의중상을 입혓다 가해자는 곳양평서에검거되여 살인미수로 엄중취조중이다

배곯은窃盜

菓子만훔처먹어

구멍가게로 도라다니며 「빠스켓」만훔처먹은 늙은절도ー시 잡어다가 구류시키워 엄중취조한결과 그는지난달 십구일가회정(嘉會町)후십번지 이갑종(李甲鍾)의 가게에서 빠스켓두상자를 훔치데맛을 부처서 전후수십여건의「빠스켓」절도를한 것이 판명되엿다

艦上에서午餐會

總督,軍司令官招待

投錨三日의伊太利艦

구일저녁부터 인천에 들어온 이태리 극동함대「몬테쿡크리」호지휘관「아멜론」대좌는 십일정오에 남(南)총독 중촌(中村)군사령관 이하를 동함상에서배푸는 오찬회에 초대하엿슴으로 총독대리송택(松澤)외무부장과 군사령관대리로 북야(北野)참모장을 비롯하야 영정(永井)인천부윤등 인천에잇는 명사들이 합석하야 오찬후까지 하엿다 또 총독부활동사진영사반은 오후한시반부터 동함상에서 영화「조선」을영사하야 약진조선의 자태를소개하고 승조원의갈채를 바덧다 또한 그배의 아식축구단은 십이일오후다섯시반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전경성군과 열이친선축구시합을 거행할터이라고한다

金剛山探勝

인천항에들어와잇는 이태리군함 라이몬트·몬테쿡크리호 승조원이백여명은 천하명산금강산을탐승코저 십일오전여섯시경성발 내금강에 향하엿다 지휘관 「아멜론」대좌와 외간부는명도 십가서 만폭사기라 외금강 온정리를 구경하고 십삼일아침으로 도라가기로되엿다

平和産業의犧牲者

時局産業에로扶助

京城府時局總動員課對策講究

積極的救濟助成에邁進할方針

전시경제체제의 물자총동원계획에따라 각종생산、무역、배급과및 소비에잇서서 강력적 수급조정(需給調整)이 적착실현되여가는결과 이상 각산업부문이 급격한 영향을받게되엿다 현재경성부내에서만해도 철、석유、피화약품、피혁、고무、섬유제품등 만흔 업종이 통제의 타격을입게되여 각업자들이 여간곤경에 빠저잇지안타 금후 어떤통제의 바람은 점점 더들어올 경세에잇스므로 어것을 이대로 방임해두어서는 산업의위축을 자아낼뿐만아니라 그들의 타격바든수만흔종업원들의 생활문제가 총후전선에 미치는바 영향이 매우 큰것이어서 관게당국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에 여렴이 업는터이다 경성부시국총동원과에서는 어떠케오로부터 서국산업에로 평화산업이 전환하는것 대용품(代用品)생산을 적극적 장려할것 셋째로 수출무역을 진흥시킬것등에 따라서 구제지도하여 나갈터인데 대용품 생산은 현재잇는 폐물리용보국회(廢物利用報國會)를 주체로하야재생(再生)공장을 설시하고 한거름 더나아가서 대용품생산에 힘쓰게할터이며 또수출무역은 무역협회와 련락하야 경기도를 단위로한 포목상조합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나아가게할터이나 서국산업에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당히 곤난한것임으로 우선그현상을 세밀하게 조사를진행중인데 그조사결과를 보아서 구체적 대책을 세울터이라고한다 그리고 어전시하의 산업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것이니만치 지난 소화칠년에 창립된 경성부산업조사회(京城産業調査會)를 종래의 조사기관의 정도에서 일층더 강화활동하여가지고 금후의시국산업대책을 이회에자문하야 결정진행할작정이라고한다 이리하야종래 부내 중소상공업조성비로써 삭 사만원정도의 예산을계상하던것을 명년도부터는 단연배가하야 적극적구제조성에로 나아가리라고한다

大麥八千石獻納

江原道民銃後熱誠

【春川】전시체제하에 처하야 풀 대맥(大麥)을 강원도에 마량(馬糧)으로 팔천석공출배당 십년방면에 총동원을 요하는이 [illegible]

★東拳의光輝잇는戰歷★

★東京學生軍을威脅!★

東洋拳鬪會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一回東京在學生對東洋拳鬪會의 對抗拳鬪戰은 어옥고 明十二日 午後八時부터 京城運動場特設링에서 壯烈한熱戰이展開될터인데 强陣東京在學生의 漸漸한戰績은 이미屢報한바와가트며 東拳選手들의 其間各個人의 戰績을 一瞥하면 「훼더」級의梁政植君은 試合數十五回에 十三勝(其中KO勝七回)二敗와 「밴담」級의 鄭龍淸君은 試合數十七回에十六勝(其中KO勝十回)一敗、「페더」級의 韓龍淸君은 試合數二十二回에 二十八勝(其中KO勝十五回)四敗、「라이트」級의 朴順喆君은 試合數(二十五回에(二十一勝)其中KO勝八回)四敗、「웰터」級의 鮮于慕君은 試合數二十九回에 二十三勝(其中KO勝十回)一無勝負로 兩軍의 勝敗를 헤아릴수업서 兩軍의 熾烈한戰績은 緊張味를띄우고잇다 (寫眞은上으로부터 梁政植 鄭龍淸 韓龍淸 朴順喆 鮮于慕 諸選手)

東京拳鬪軍來社

明十二日밤 京城運動場에서열리는 東京在學生軍對 東洋拳鬪會軍의對抗拳鬪戰을앞두고 東京在學生軍은 東拳의金正華、金明坤兩氏의 案內로 人事次로 十日正午 本社를訪問하엿다

庭球三部對抗戰에 朝鮮軍優勝

【宇治山田電話同盟】七日에第一日을마치고降雨로因하야 延期中이던 伊勢神宮奉納庭球大會는 天候가回復된 十日午前十時부터 女子一般選手權及大學 高專 專門學校三部對抗戰을 擧行한바 三部對抗戰은 朝鮮軍이優勝하엿다

朝鮮軍七ー二關東軍
關東軍七ー○東北軍
朝鮮軍七ー二關西軍

京醫專蹴球合宿

다처음씨ー즌의 猛練習을目標로 京城醫專蹴球部에서는 來十四日부터 三十日까지 平康水玉里三山旅館에合宿하며 猛練習을 開始할터인데 一行의「멤버ー」는 다음과갓다한다

▲部長ー白麟濟 ▲마네저ー宋浩昆 ▲主將ー李慶鎬 ▲選手ー朱永在 金應振 崔振恒 金永燮 石西鎬 李春益 任周華 鄭承勳 黃善璟 金應浩 吳萬植 李炳秀 李麟永 韓長淳 李敎鎬

天野富勝君 世界新記錄

【東京電話同盟】十八分五十秒一이라는 千五百米自由型에 前人未踏의 大記錄을 樹立하야 一躍水泳日本의 名譽를 宣揚한 新進天野富勝選手(日大)는 지난十日 關東水上選手權大會 千五百米自由型에 出場하야 世界記錄보다는 不良하엿스나 水上日本宿望의 十八分五十秒八이라는 世界最高記錄을 樹立하야 一九二七年에 作成한以來 十一年間을두고 突破하지못하엿든 超人的記錄을 八秒四나 更新하엿는데 途中五百米、千米의「라프타임」에잇서도 世界新記錄을 지어 더욱이 記錄은 光彩를 發揮하엿다 이날 天野君은 三百米에서 벌써 世界記錄「알네볼그」의三分三十八秒를 二秒二短縮하야 三分三十五秒八을 지엇스며 五百米의 正式計時에는 世界記錄을 六秒二나 突破한外에도 오히려 躍進을 거듭하야 八百의 正式計時에잇서서는 牧野君의 保持한 世界記錄九分五十五秒八에는 不及하엿스나 「알네볼그」의十分九秒卜를 훨씬 九秒八로써 離隔하엿다 超人的氣象을 보이엿다

色鉛筆

사람은 삼십에뜻을세운다고 햇스면 그만일것가터보이거도하는것을 그래도 마음이 노하지어렴지 사실에뜰어서야 한국을 괄지안코 제거를 차저든다고◆이생이 청년도 각기도 드물다고하면서 제것을 차저드는 이 도저히 라고하니 파연 그이성의 태도가 엄마나신중한 것이 겨우 사십에든 가를 진작할수잇다 ◆사실로는 일이던지 일오진중하여야 한에 는혹기박강한 청년기보다 경험 만하 때도 어느정도까지 차이고 생각하는 때도 잇을 것이다 별거에들어가서 비로소 일이본격적으로 숙달해질것도 사실이두◆풀은형에 만코 급하고 바빠서 경면으로서도 저마다본받아여 엄하게되는것은 본래조흔겻이나 여생내의 상심전에모다 쳐리고하는 대가가되고 그나마 일찌기 노성해버리는것은 실로 딱한일이라할것이다◆가뭄이들어서 어삭이의기도전에 곡식이말른다고 야단이이때 특히 생각되는것은 이번의청년이 멀고 먼 전도를 생각지못하고 개목이 든 곡식처럼 억기도전에 일찍 말러버리는것이 병통이라 아니할수업다

國旗會活動

勞働者에垂範

금춘총독부에서 전라북도남원군(全北南原郡)으로부터 함경남도풍산군천남면(咸南豐山郡天南面) 허천강수력전기(虛川江水電)공사 제이수로(水路)공사간조(間組)에 알선한 문병기(文炳起)의사십팔명은 지난칠일 이일 국기회(國旗會)라고하는 친목단체를조직하고 태만을경계하며 분산을방지 [illegible]

(사진은 여의조원)

"女給品位學"

健實한職業人이되도록

每週木曜에講話一席

본정서의 여급강좌개강ー본정서에서는 요지음여급들의 풍기가비상히 저하되고잇슴으로 어것을향상시키는동시에 경박한 자포자기에 배지지안케 하기위하야 매주목요일마다 정거로 관내의여급 수십여명을모아노코 보안주임이 강사겸으로 저금(貯金)장려와 품위향상에대한 친절한 강좌를 하는동시에 그들로하야금 건전한 직업인이 되도록 사회전세일반에 대한예설을하야 조화정적을내어고잇다

更生의盟誓虛事

搜査는機關車橫領犯、잡고보니

意外、前科二犯經歷者

거보=수선해돌라고 위탁마튼 공사용(工事用)기관차를 다른사람에게 육천오백원에 팔어먹고 빼소어를친 부내제기정(祭基町)사십오번지경동(京東)써ー비스 경영주 박래춘(朴來春)은 그동안 소판통대문서의엄안수사에도 불구하고 의연종적이 묘연하여 동서수사대로하여금 초조케 하던바정적을감초지 삼주여인 작십일대구(大邱)에서 부잡되엿다 부잡된 박래춘은 본명은 황건주(黃建周)、경북출생으로 사기상해(傷害)전과 이범의 과거를 가진자로 작년봄에 현주소를나오자 박래춘이라는 가명으로제기정에다가 철공소를내고 교묘히 전신(前身)을감추고 갱생(更生)을 결심도 해보앗스나 새가정에 재미를 부치지못해 재차 화류계에발을 드려노케된것이라 비용에궁하게된 동기여서 지난달이십여일 수선을 부탁마튼 경춘(京春)철도공사용「도롯고」기관차를 원정(元町)일정목에잇는토목청부업자 강조(岡組)에 팔어먹고 도망한것이라는데 그동안서울을 빠저나와대구(大邱)로달성정(達成町)사는 섭부기생 김숙자(金淑子)(二○)방에 숨어잇다가동대문서의수배로체포된것이라한다

惡德印刷職工

부내신당정 대현동(新堂町大峴洞)이백팔십일번지의 오십삼호 이완성(李完成)은 일사년전부터 앵정정(櫻井町)백석(白石)인쇄소에 와서 주인의 신임이두터운것을 기회로 최근은 용돈에궁할때마다 활자(活字)를 도적해내다가 팔어먹기가 일수여서 현재판명된것만해도 백여원어치나 된다고한다 범인은 죄가들어날것을 두려워하여 구일어데로인지 종적을 감추어 버렷슴으로 방금 동대문서에는 각지에 지명수배를 발하는 한편 그행방을 엄탐중이다

古鐵物價暴騰으로

惡德古物商跋扈

咸興署斷乎嚴罰方針

【咸興支社發】함흥경찰서에서는 부내각고물상에 대하야 부정품(不正品)의 판매를 다시엄중단속하는 동시에 최근철물가의 대폭등에 편승하야 부내각고물상에는 이부정품을 엄면서도 묵전에 어이없게 매하는폐가 자조잇다 어리하야 금후는 이폐품취체를 엄중히하야 위반하는 고물상은 단연 엄벌할 방침이라고한다

시집사리고되다고

同媤끼리携手出奔

酒店雇用女로드러가려다가

警官에게發見送還

서울동가의 고된시집사리가 죽기보다싫여 동서끼리 공모하고 손에손잡고 서울로 도망해온 젊은여자들이잇다ー십일오후세시경에서 부내 청량리정(淸凉里町)일백칠십오번지 주광수(朱光洙)경영의 음식점에 서울서왓다는 젊은 여자들이 와서주인을보고 엇재리자 업서서 고생중이니 보수는 아무리개해도 조흐니 고용내로써 달라고 졸르고잇슬지음 지나가던 청량리주재소원이 어경을보고수상히 여겨두 여자를 주재소로 데리고가서조사해보앗다는데 조사의결과고을 버되기를 애원하는 어두여자의 양주군장상면화양리(楊州郡長湘面花陽里)사는 김봉수(金鳳洙)의처 엄인경(嚴仁卿)(二一)이와 주의종성 김한영(金漢永)의처 김씨(金氏)(二一)로 시골농가와 고된시집사리에 지친남어지에 동서끼리공모하고 시집을 빠저나와서울로 도망해온것이 드러낫슴으로 동주재소에서 여두여자에게잘못을 깨우처준후 함께 시집으로 돌려보내엿다한다

溺死屍漂着

십일오후시경에 부내에 죽청정(竹添町)[illegible]번지 양화장(楊花場)[illegible]가에서 육십세되여보이는 노인이 의사체가잇슴을 지나가던 인어 발견하고 즉시소관서에보고하엿는데 신원은아직조사중이라한다

水泳하다溺死

부내신당정(新堂町)이번지의일호 김경수(金慶洙)방에잇는 김석천(金石天)(二○)이는 십일오후여섯시반경에 금호정(金湖町)이십팔번지압 한강(漢江)에서 해엄을치다가 기운이빠저죽엇는데 시체는 아직발견치 못하엿다한다

同民會主催로 婦人講習會

시내화천정(和泉町)후번지에 [illegible]

열후와누의衝突

[illegible]

라디오

第一放送 ▲午後六時三○分라디오作文▲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七時 講演 沈友燮▲八時 社會見學 ▲八時一五分 連續時談 張志浩▲八時五○分 唱劇調▲九時一五分 誦書▲一○時一○分 圖書講座

第一放送 ▲午後六時(東)이야기▲六時一七分 普의各臣▲七時三○分(城)講演▲八時(東)獨奏▲八時一五分(東)라디오讀本▲八時三五分(大)舞踊劇

(蓄膿症手術의圖)

코나쁜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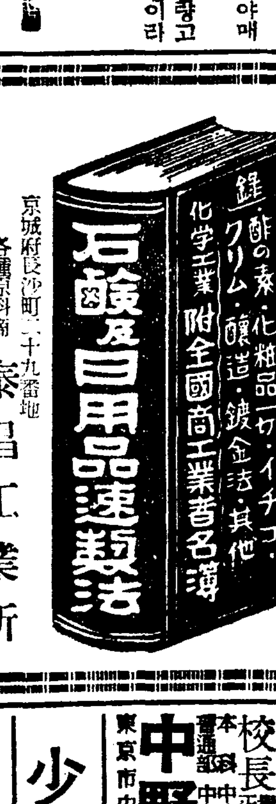
苦痛받잔코누구나 自宅에서할수잇는 治療와 그方法

코가막히고 頭痛코물과靑黃色인 코물이늘나고 냄새를모르며코물이목구멍으로느려들고 코안과 엽안이마르고 코가무리고 記憶力과思考力이減退하고 얼굴머리고자는 等吉如此한 症狀의어느것에나 該當하는 蓄膿症에있든이는 鼻病이 먼저 自己의鼻病을 무슨病名을 가지鼻病인가를 確知하고그治療와方法을알어야는것이 第一가깝한것이다 本所에서는이런것을 누구나알할도록親切히 說明한鼻科讀者로고記入해서申込하라 朝鮮日報讀者에게 無代進呈하니곳申込하라

埼玉縣大宮町(永川公園) 東京鼻科藥房研究所

洗濯비누를(每個三錢式新製法案內)

過去時代는 복잡한製法과 原料로하엿스나 現時代는 何油脂等으로 누구나 能히 一日實習만하면 開業이 確信함으로 左記種品에關한(製法冊)과 原料를 案內하오니 商工業에有意諸氏는 金四圓五十錢만 送金하시면 秘法에關한左記寫眞과 如한 十三種以上 製法冊一部及 實驗原料一組入 一箱子를添送하오니 製法에依하야 自家器具等에도 能히되오니 一次實驗한製品을使用後營利的原料를 注文하여 着手함도安全하오니 實驗하신후 何原料던지 卅圓以上注文時는 前實驗料代金은 共除함 原料는實驗有意한데로 一組를記送하시오 (四圓五十錢에關한原料를注文時간金張時計一本無料送)



京城府長沙町二十九番地 各種原料商 泰昌工業所 振替京城一二五○九番 (原料仕入法까지發見함)

最新强壯劑 フエロトン

本報蠶島支局 本局三八八六

綿純 자투리써비스

八月十一日(木)—十三日(土) 三日間限

三階特賣場

京城本町(2)電3846

鐘紡サービスステーション

カネボウ

精力强進劑 參茸トニク

精力減退의人! 早老衰弱의人!!

에게參茸トニク는唯一한蘇活劑로서定評이잇습니다 本劑는驪合要素劑인故로身體內部로부터精力을增强시키며精力減退、神經衰弱、病後衰弱、肺結核、貧血症、早老等等으로悲觀하는人에게顯著한强精効果가有한것은實驗에依하야明白합니다

(全國有名藥房及百貨店藥品部에서販賣함)

藥價 五圓 二圓八十錢

製造發賣元 京城鐘路三丁目 慈善堂製藥株式會社

賣捌元 東京本町四丁目 木村藥房

代理店 東京 大木合名會社 大阪 高橋盛大堂

無代進呈 見本並ニ說明書

少年

九月號十五日發賣만十錢

中野高等無線電信學校

校長 貴族院議員 正四位男爵 沖貞男

本科中卒程度·專科二年 高卒 普通部 中二程度·

陸軍省·海軍省·遞信省·鐵道省·農林省·航空局·滿洲國無線放送局等 就職 [illegible]

東京市中野區江古田四丁目·電話中野五九七三番·寄宿舍完備

림질? 매독?

남녀간이아모리난치의림질이라도보사림질약은특약적일로갓드리게압흠이업서지며오줌이순히나오되약의녀온전신고름이다흔거근뢰녀오거근되게하는환자가오히려면서도잇는데七圓五十錢송료하는 면질에도기고 고름이 업시정지에 불과한六○호와비호제 매독에는몇가지약을쓰도록 七圓五十錢 송료로 등을시험하시라

京城府貫鐵町二五番地 大力丸製造所 京城藥業社 電光一八○八番

淸血排毒强心劑 海草精

適應症 黴毒性疾患、淋毒疾患、胎毒、心臟病、急性慢性ロイマチス、鼻炎、神經痛、喘息、神經衰弱、皮膚病、咽喉疾、頸腺、皮風、腦溢血、中風、內臟、疫腫、動脈硬化症、半身不遂

一瓶 (一個月分) 二圓九拾錢

日本藥局方 精製 第二號發賣

京城府鐘路六丁目二六七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振京二二○九八番 電光二三二四番

피를맑게하고 여러가지독을업새면만병은소멸된다 그러므로곳해초정을시험하라

남녀가이에게는 [illegible]

訃告

貞夫人全州李氏以宿患今月十一日午前一時別世茲以訃告

發靷 八月十三日午前十一時
葬地 京城府弘濟院大自宅

昭和十三年八月十一日

子 崔 榮 澤

知舊間 訃告省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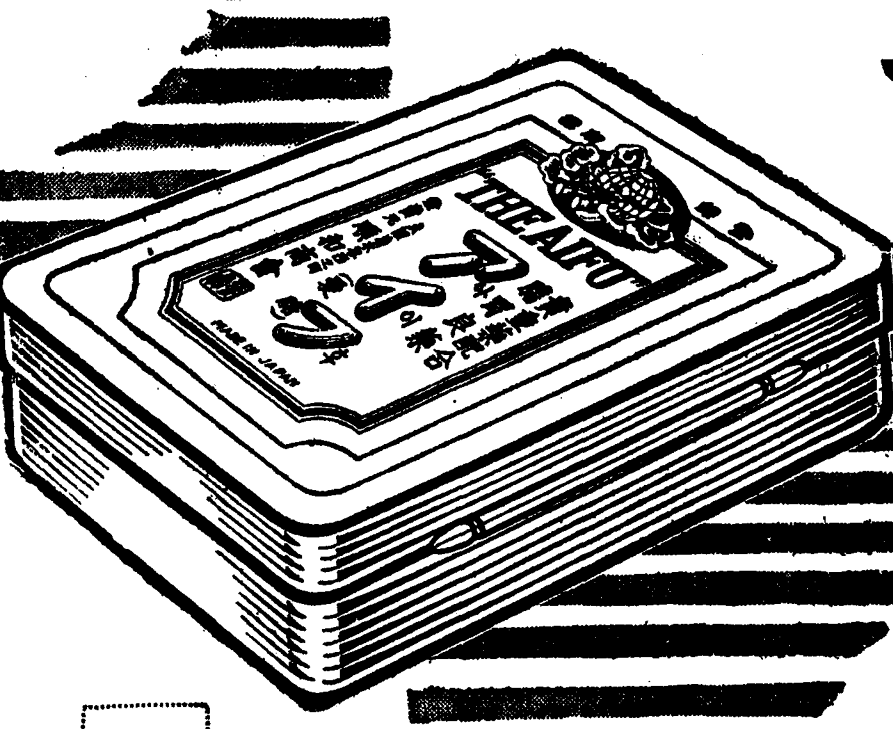
夏의胃腸病에는
治療藥アイフ(아이후)의
御常備御服用을

急性胃カタル

暴飮暴食을하던지冷한것을、過飮하던지아니하[illegible]分이强한것、不消化物、脂肪質이만흔것을、過食하던지未熟한果實、腐敗한食物을먹던저해서胃가機械的으로、化學的으로、溫熱的으로、異常의刺戟을바드면急性胃炎을이르킵니다。

症狀으로서는、食慾이업서지고、가슴이답답하고건구역이나고、發熱을하고、胃痛을感覺케됩니다。激烈한頭痛이잇고、嘔吐를促하는일도잇스나、嘔吐後는一時便합니다。또腸을害친경우에는、泄瀉를하게되는데、이런경우止瀉劑의濫用은、삼가지안흐면안됩니다。왜그러냐하면 嘔吐와泄瀉는、腐敗한食物의毒素와體內에서醱酵해서생긴、毒素를一時라도速히體外로내보내려는、自然作用에不過한것인故로오히려吐劑를使用해서、吐出하던지괴마자기를파제는泄瀉劑를써서速히、排出하는것이、合理的이라고합니다。

食餌는一兩日絶食해서、身體를安靜케하는것이조흐며藥劑로서는、胃粘膜의腫脹을防止하고炎症을낫게해서分泌과、蠕動機能의異常을整調하는治療藥アイフ가賞用되고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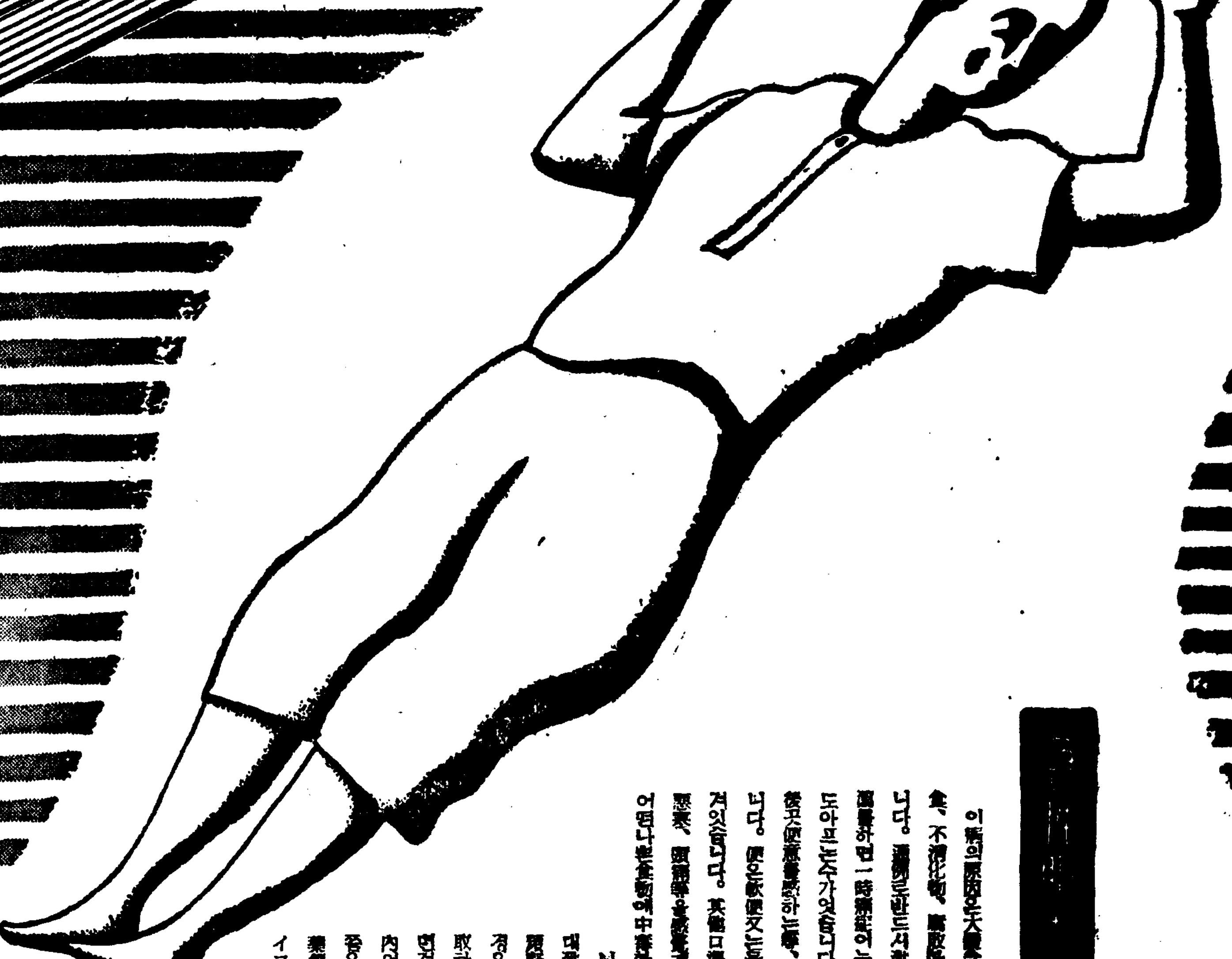
胃腸

의機能이極度로衰弱하는고지음은、健康한사람도無理를할수업고깟닥하면、胃腸障害를이르키게쉬운데平素부터그리튼튼치못한분과慢性症狀이엿는분等은、食慾不振으로榮養이衰하고、顯著히夏瘦하는故로特히이季節의攝生이緊要합니다。

더웁다고해서、생각나는대루、果實、비ㅣ루、사이다ㅣ、아이스크림……等함부로冷한것을드리키면、그야말로갈데업는泄瀉、腹痛으로苦生하고、一層痼疾을惡化시키는것입니다。衰弱이더해지면抵抗力도鈍해지는故로、赤痢와腸疾扶斯等의傳染病에도걸리기쉽고、조곰한不注意로도리켤수업는不幸을안본다고도할수업습니다。

그런대이러한胃腸의危險期에는、우선治療藥アイフ를服用해서慢性的인胃腸病의治療에努力함과함께暴飮暴食、不消化物、腐敗한食物、過冷한飮食物、寢冷等、急性胃腸가다루의原因이되는不攝生을삼가는것이무엇보다도緊要합니다。또、설령急性胃腸가다루에걸렷슬지라도唐慌치말고治療가되도록、治療藥アイフ만은常備하서서惡疫의侵入을未然에防止하는것이夏節의衛生常識이안이면안됩니다。

治療藥アイフ에는病源、對症二種의作用이잇고、主藥이胃腸內壁의病變部에沈着해서炎症을곳치고、粘膜을强케하고、弛緩을引緊하야、分泌과運動機能의異常을整調함과함께、腸管內의有毒物質을吸着해서體外로排泄하는等、廣汎한病源治療를營爲하고、아울러、속쓰림、트름、건구역、胃痛、腹痛、泄瀉、嘔吐、消化不良、食慾不振等의諸症狀까지도消退해서機能의恢復을速하게하는故로、夏節의急性胃腸病에는다시업는治療藥으로서賞用됩니다。



急性腸カタル

이病의原因은大槪急性胃가다루와同一해서暴飮暴食、不消化物、腐敗한食物、過冷한飮食、寢冷等입니다。通例로반드시泄瀉를하고腹痛이잇습니다。泄瀉를하면一時痛症이누어지기도하지마는便通이엇슬때도아프는수가잇습니다。裏急後重이라고해서、排便後도便意를感하는等、一日四五回以上十數回에達합니다。便은軟便又는물과가튼泄瀉便으로、粘液이석겨잇습니다。其他口渴、食慾不振、腹部膨滿、腹鳴惡寒、頭痛等을感覺케됩니다。普通은無熱이지마는어떤나쁜食物에中毒한경우는、高熱이잇슬때도잇습니다。

여기注意할것은疫痢나赤痢等의區別인대泄瀉와共히嘔吐하고體溫이顯著히下降할경우와頻繁한泄瀉에粘液、血液이석기고、高熱을隨伴하는경우는、傳染病인것으로알고、速히適當한處置를取하지안흐면안됩니다。急性腸가다루인경우에는먼저第一로괴마자기름과가튼下劑를投與하야、腸內의有毒物質을一掃하는것이、理想的으로서하로쯤은、絶食해서身體를、安靜케하는것이조흡니다藥劑로서는病源、對症二重의作用을가진治療藥アイフ가大端히効果的이라고賞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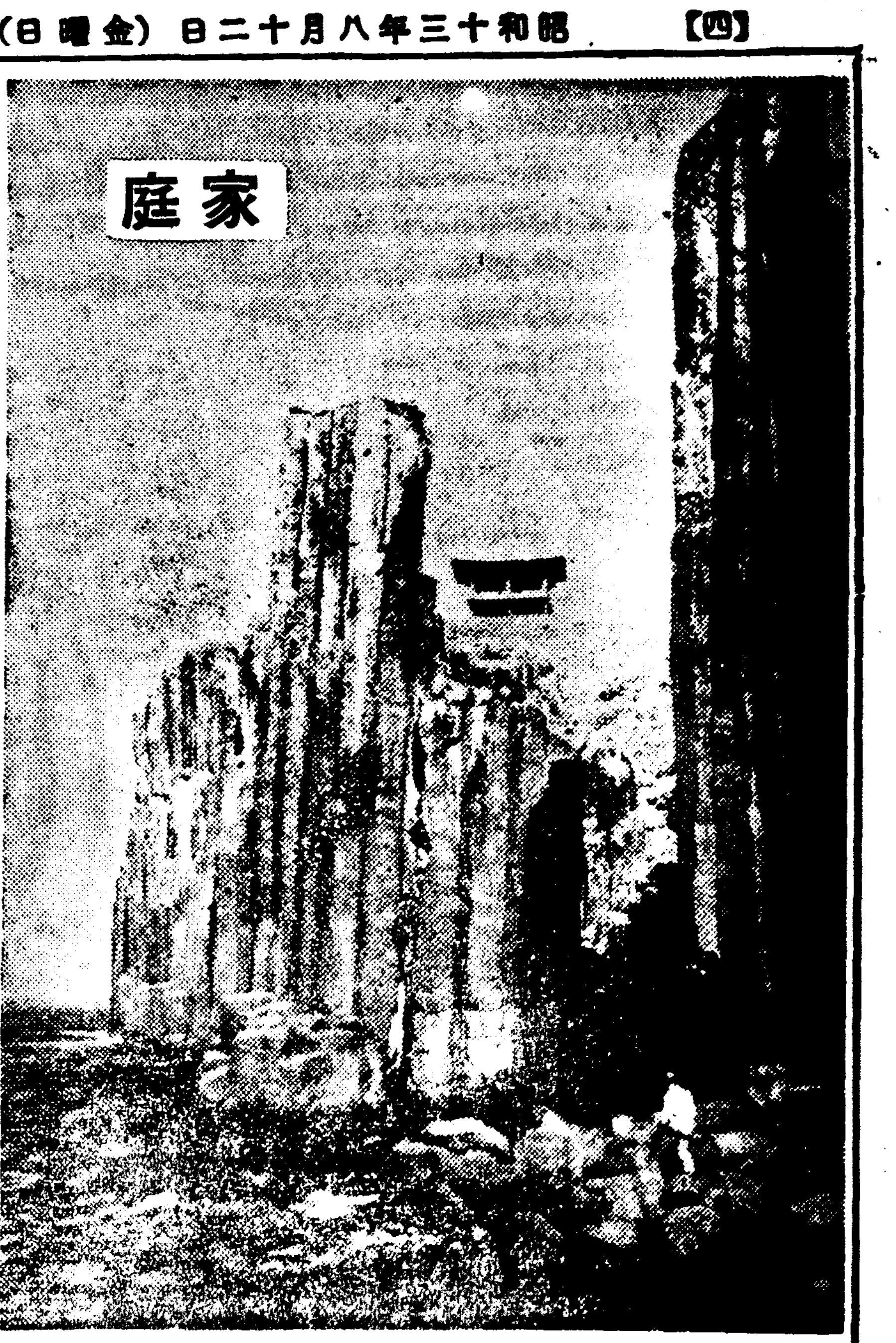
藥價

四日分	七十五錢
八日分	一圓五十錢
十七日分	三圓
特製十一日分	五圓
重症에는	特製アイフ
便秘症에는	加減アイフ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슴◀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八八番 電話(小石川)四〇〇一〇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〇八番

家庭



가므잡잡한 여름의표증
벗거는결막기보다 곱게태우십시요
이야말로정말건강색

바다ㅅ빗가티 푸르른하늘-그리고 이글이글타는 또약볏-그리한 여름날아래 생긋웃는처녀의 얼굴、보리ㅅ빗 피부의 힌이를 드러내고 깨긋한눈섭-이런한것들이야말로 전형적여름의 미인을 만드는것이아니겟습니까。

창백하도록하얀 얼굴은 여름의아름다움이 아닙니다。지금까는 여자의얼굴은 히기만해야한다고 여름이되면 볏헤그으는것이 걱정이되여서 어떠케든지그을지안는 방법을 연구해왓습니다。그리고 누구나 마음노코 바다나 산에가기를끄렷습니다。

그러나 정말아름다움이란 그러케 볏만보지안는것이 아니고 진정한 미의의식은 잘고 발달되는것입니다。

지금은 건강한데서 오는 미 그래서 발랄하고 생기잇는미가 아니면 우리의눈을 만족할수업습니다。

그러므로 여름에 볏테그을지안는법만 생각지말고 차라리볏테 그으는데 어떠케하면 보기실케 꺼머케만 되지안코 약간 보라빗의 윤태잇는 살결로 만들가하는 공부를 하는것이 조흘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으로 볏테그으는것을 그대로내버려두면 부분적으로 꺼머케 점이백여서 피부가 버서진다든지 염증을 어르켜서 아주보기실습니다。

뿐만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색소가 모혀서 여름에만 특히 죽은깨가 만히생기는수도잇습니다。

그러므로 볏헤 타게하되 그냥 제대로하게하면 이러케 피부를 거츨게하고 보기흉함으로 타되 아름답게 타게할것입니다 또볏헤타는것을 막기위해서 물분을두껍게 바르고 해수욕가튼것을하는사람이 엇는데 여간참 불유쾌한 인상을줍니다。

이제 아주아름답게 그으는법을 말슴하겟습니다。첫재 화장을하는데 아주엷게합니다。목、얼굴、손외전체에 올리브유를 엷게바르든지 또는조흔 콜드크림을 바르고 코ㅅ등에만 가루분을 바르고 연지는 얼굴전체에 엷게칠해둡니다。

이러케하면 꺼머케되지도안코 기미도생기지안코 아조아름다운 보리ㅅ비치로 됩니다。또는수영할때 소금기운때문에 얼굴을 거칠게할 염려도 업습니다。

또여름엔 머리털이 붉게되기 쉬우므로 늘깨조심해서 한수일에한번은 의례가머야하고 벼치 또지울때는 파라솔을 밧도록해야합니다。

치-쓰
원래는불란서것이나 지금은미국이제일

치-쓰라고 아직잘 모르시는분도 게시겟스나 서양사람의음식가운데 업서서는 안될 중요한것이며 인제는 우리들도 꽤 만히먹게되는 빠터와 한가지 역사가 기픈 식물입니다。

치-쓰라하면 스위쓰(瑞西)치-쓰를제일이르게됩니다。이스위쓰에서나는치-쓰가 널리세게에 알려지기도 벌서 사백년전부터입니다。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훨신 옛날 로마가 한창성해서 화려하게 누리든때 벌서 스위쓰로부터 어맛잇는 치-쓰를 수입햇다는 사실이잇습니다。

치-쓰는 그러면 어떠케되여 사람의 식료품으로되엿는지 거기엔 아조재미잇는 전설이 아직도 남어잇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대략일천년전에 불란서『로케포-드』근방에어떤 양치는목자한사람이 엇섯든탑니다。

그런데 그목자는 매일 양의젓을짜가지고는 그근방에잇는처늘한 동굴속에 드러가 짱에 석거먹잇든탑니다。

그리다가 어떤날은 젓을가다둔채모스근급한일이생겨서 어디로 려행을하고 두어주일후에와서 그굴속에둔 양유를보앗답니다。

보니까 양유는 덩어리가되고 그가장자리는 퍼러케 곰팡이가 낫드탑니다。본래 막돼먹은 목자라 그것을 곰팡이를 슬슬분질러 먹어보앗습니다。

그랫드니 그맛이란 아주사람이 죽게 향기롭더래요。그래서어것을 가지고 꼿 자기친구와또는 부근에잇는 콩캐쓰·모나스테리란 수도원의 승여들의게알려주엇습니다。

그랫드니 승여들이 [illegible]리 전파해서 오늘에 이르[illegible]데 지금도 로케포-드에서는옛날 양치든목자가 쓰던 동굴에서만 드러낸 치-쓰가 제일상등품이라고합니다。

원래 우유는 그대로두면 바테리아가 번식해서 우유가운데 당분을 유산(乳酸)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낙소(酪素)가 엉겨서덩어리가된부분과 유청(乳淸)이란물과가튼 부분이 서로갈리게됩니다。이 엉겨서 덩어리된것이 소위치-쓰의 근본입니다。

옛날엔 이덩어리를 그대로먹엇지만 이것은 이대로 두면아조 무수한 바테리아가 생기고 이내 상해서 몰수가업슴으로치-쓰제조가 사이엔 여러가지 만흔연구가 잇슨결과 유익한 유산 바테리아를 살려서 해로운 다른바테리아를 쪼차내도록하는데 성공햇습니다。

그런데 먼저말한바와가티 유산바테리아나 곰팡이의 활동만으로 만들어지는 원시적제조법으로써는 온도의변화 습도의영향을 바더서 오래동안 보존할수업스므로 이것을 앎작기에너허서 고형물(固形物)로 만든다음 다시살균법을써서 어삼년동안 저장해둘수잇게만든것은 아메리카치-쓰 제조가처음으로 발명한것으로써 이것은 아주후세에 이르러 된 바법입니다。

다시 일천구백십오년 아메리카 그라프드·메닉쓰·치-쓰제조회사의손에서 그제조상 일대개혁을 가한것입니다。

즉여분을 섞기도하고 그밀도를 놉게하게해서 한층더사람들어 조와하도록 만든것입니다。

이러케 오늘날보는 치-쓰와가티 완전한치-쓰를 만들기까지는 여러가지로 만흔 연구와 변천이잇섯고 종류도 수백종유로 남을수잇습니다。

아메리카에서 그처럼 완성된 치-쓰를 만드는것은 처음그들어 고향에서올때 가지고온 비방으로부터 시작한것입니다

지금 전세게에서 쓰는 치-쓰의 [illegible]는 미국에서나는것인데 옛날부터 치-쓰로유명한 스위쓰사람은 지금도세게어느나라사람보다도 치-쓰를만히먹는답니다

토마도로 고기소배기요리

토마토에다 고기를 다저넣코 베로 지저내면 보기도 조코 맛도 엇는것이됩니다。

토마토는 배꼽잇는데를 찾접 도려내고 속에 줍파씨는 따로 떠놈습니다。그러다음 소고기다진것과 다마네기와 감자를 배에 지저서 소곰파 호초가루로 간을마추어서 어것을 토마토속에 넛습니다。

그래가지고 푸라이남비에 빼를 조금녹이고 그가운데 토마도를 쭉-세워노코 또평하게 떠서 장기게넘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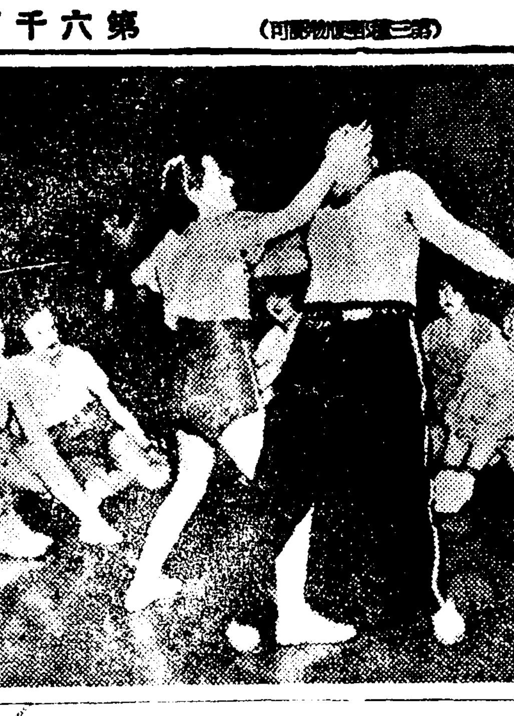
그러다음 토스트 두쪽을 접씨에 담은후에 노아서 먹습니다。

신장병에조흔 옥수수

요즘만히나는 옥수수는 맛도 조커니와『비타민「에이」』가상당히 만키때문에 아히들에게조흔 군것질이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수염은 리뇨제(利尿劑)로 효과가 만습니다 신장염 바랑염등으로써 오좀을 만히누어야할 사람은 이옥수수 수염을 하로에 다섯그람쯤 끄려서 그물을 마시면효과가 잇습니다。

에마바다라!
미국여순사의무술



꼿도 부끄러울만큼 아릿다운 여인이 이게무슨짓입니까 대장부의 뺨을 치바쳐 쓸어트리려고 합니다。그러나 안심하십시요。폐 니그럴리야잇겟서요 사실은 아메리카의 부인순사가 혹 어느때 무슨급한일을 당하면―하고 맹련습을하는 광경입니다。

만일 술주정뱅이라도 덤벼보시지오『정신체려스』하고 한대로치지는 작정입니다。

치차리우

굿는떡

학질이는 굿는떡이라는 별명을 듯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뒴뒴어가 심술꾸러이로 된데다가 조금만 제수에틀리면 불따구니를 불룩불룩하고 입을 삐쭉삐쭉하는게 마치 언절미를 불에구면 불룩불룩하는거와 갓다고 해서 한말입니다。

([illegible]사람 康成九)

長篇小說 愚氓 【104】

朴泰遠作 洪祐伯畵

山속의妖婆(4)

장씨는 어리둥절하여 그파노의 엽얼굴을 치어다 보앗다。

(미련한 인간은 종시 밋지를 못한다고……정성 업는 사람을 무슨 소로 [illegible]겟느냐고……、그러던 어어른은 벌서 내가 그를 밋지못하고 몸을 빼치려 하엿던것을 알엇단 말인가?…)

생각하여보니、무서운사람이엿다。남의폐부에 감추고 잇는 생각까지를 겨울속을 들여다보드시 화안하게 알고 잇다니、참말 무서운 어른이엿다

(날더러 어서 산을 나려 가라고……、밋지 안는 미련한 인간은 그만 가라고……)

장씨는 한참을 얼빠진 사람가티 노파의 엽얼골만 울어러보앗다。

그러나、그 이상한 늙은이는 그러케 자기를 바라보는 장씨의 존재 가튼것에는 완연히무[illegible] 단[illegible] 장을하다。

그 모양을 이윽히 보고잇는 동안에 장씨는 마음에 뉘우침이 컷다。

『내가 잘못하엿다。내가 잘못하엿다。이어른을 여우가 탈을썻느니 무어니하고 의심을 하다니……혹은 산신령님께서 나를 귀히 보시고 이러튼영한 어른을 맛나뵈옵게 하신것을 함부로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전연히모르고 밋지안코 [illegible]다니……신령님의 벌역이 무서운 노릇이 아니겟느냐!』

장씨는 저도 모르는사이에노파아페가 무릅을 꿀코 안저 오즉 그가 눈을뜨기를 기다렷다。노파가 눈을뜨자 장씨는 지정으로 말하엿다。

『미련한 인간이 눈은 잇서도 망울이 업서와 알어뵈옵지못하엿습니다。어지신 마음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저 불상한 제자식 병신안되게 하여 주시십시요。』

그러나 노파는 그대로 단정히 안진채 눈 한번 까떡안코 마즌편 바위가튼 용시를한다 장씨는 다시 그에게 빌엇다

『그저 어리석은 생각에 그랫든 것입니다。일시 마가 씨여 그랫든것입니다。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요。제게 정성이 부족하엿든것이 아닙니다。제자식 사랑이 지극한 아닙니다。제자식 사랑 안하는 에미가 세상에 어데 잇겟습니까?그저 그 불상한자식、다리병신만 안되게 하여주시면 무슨 정성이든 다해바치겟습니다。』

그래도 노파는 아모 말이 업서 굴방게 세차게도 나리는빗줄기만 바라보고 잇다。

장씨는 마른침을 한명어리삼키고 다시 한마디 하엿다。

『제발 귀히 보시고 불상한 자식 구해주소서。』

그리고 그곳에 한참을 말업시 장씨는 고대로 꿀어안저잇섯다。

그래도 노파는 아옥히 지나서야 비로소 그의 면으로 고개를 돌렷다。그리고 잠시 또 그의얼굴을 들여다 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엇다。

『정녕 나를 밋겟소?』

『허유 그럼요 멋구 말구요……』

장씨는 황망히 대답하엿다。

『나 하라는대로 무어든 하겟소?』

장씨는 또 황망히 대답하엿다。

『그저 불상한 자식 다리만 고처 주신다면 무슨 말음을 안듯겟습니까?』

노파는 다시 또 이윽히 장씨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하엿다。

『시장하겟소。어서 밥이나 먹읍시다。』

장씨는 밥보다도 방문이 더 급하엿다。

(이 어른은 정녕 모륵이 다리를 고처주실어른이시다。영한 방문을 뭘시 알고 게실것어다……。)

그러나 참말 그러케 영하신 어른이라면 어려히 다 아시고 하여 주실라고

(그걸 내가 외람 스럽게 재촉을 하고、어쩌고……)

그것이 모두 너무나 송구스러운 일이라、장씨는 깨닷고、(무엇이던、그저 하라시는대로만 하여야……)

그러케 그는 마음 먹엇다。

그러나 노파가 아래 노하주는것은 그 재용의 밥과 짠지 한두가지에、더구나 다리빠진 놋수까락 한매여서、장씨는、

『저는 이제 나려가서 먹을걸요。일건 잡수시려고 지신것을……』

하고 말하엿스나、노파는 입가에 자애로운 우슴조차 머우고서 말하엿다。

『내가 먹으려고 지은 밥이아니요。나는 원래 화식(火食)을 안소。쌀과 나무는 모두 내게 인연 잇는 이로 근심을 풀은 사람 대접하려두어 두게요 찬이 업소만은 시장할레니 어서 좀 자시요』

장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그럼 이 어른은 벌서 내가 오늘 이곳에 올줄 다알고그래 밥대접을 하시려 일부러 악수리를까지 쌀을 씻으며 나리오섯든것이가……) 다시 한번 노파의 얼굴을치어다 보며 그는 마음에 놀람이 컷다。

口中殺菌劑

입으로들어오는병을막고 정신을상쾌케하는

衛生口錠

가오-루

더위를타지안코 튼튼하게하여주는가오-루!

여러분의口味에꼭맛는本劑는 늘 三千萬同胞의健康保護神이되여서 生活戰線의勇士로만들어줍니다

★…그것은 가오-루의三大약효로써 明朗한健康生活을하시게되는때문입니다…★

㈠ 여름에걸니는 모든病을豫防하여줍니다…
口中殺菌劑가 配合되어잇는까닭에 입으로들어오는病菌을죽여서 병에걸니지않도록하며 늘 며전에 예방하여줍니다

㈡ 몸을튼튼하게하고 精力을돋아줍니다…
健胃整腸劑와 强壯劑가配合되어잇는까닭에 먹은것을모도 살과피로가게하며 胃腸을 늘튼튼히하여주어서 精力을돋웃아줍니다

㈢ 상쾌한기분이늘도다 더위를잇게합니다…
淸凉興奮劑가 配合되어잇는까닭에 心身의機能을 왕성케하여주며 精神을상쾌케하여줌으로 더위를잇고지내실수잇읍니다

여름은 구미가떠러저서 飮食을 잘 잡수시지못하게되야 더위를타고 몸쇠약이심하게되오니 음식후에는 반듯이 本劑를 복용하여주시면 心身各機能의活動力을 왕성케하여주며 胃腸을 튼튼히하고 입맛을돗아주어서 여름쇠약을방지하며 精神을 늘상쾌케하여줌으로 더위를잇고 서늘한기분으로 민첩한 活動을하실수잇으며 더욱히피곤함을 잇게하야 내일의活動力을 돋웃아줍니다

그러므로 出入하실때 전차나 기차 타실때 사람모힌곳에 게실때 구경하실때 사무나 열하실때 음식을잡수신후 구미가없으실때에 부세암식 입안에너부시면 됩니다

☆모양좋은防濕甁入가오-루는퍽 德用的이오며 夏節에도 습기를 타지않음으로특히愛用을바람니다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入	(二十錢)	二百五十粒
携帶用防濕甁入	(三十五錢)	三百粒
포켓트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燐寸·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保健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甁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本舖 株式會社 安藤井筒堂藥品部

學芸

××八月創作一人一評××(二)

作家의 性格과 體臭

安懷南

李石薰氏의 『女子의不幸』

李石薰氏의 創作集『黃昏의노래』出版記念會때 席上에서 나는 所謂 祝辭를 한답쇼 하고 이러서서는

『同』書를 가르처 쓰레기둥이라고 말하엿다. 結果로 보아서 祝辭도 아모것도 아니엿다. 나보다 年長한 人物들이 모다 佳作이다 傑作이다 讚揚들을하는데 이것은 그것에 對하야 그냥 逆說에不過한것이엿다. 그러나 내가 쓰레기둥이란 말을 使用한 眞意는 오로지 貶毁하기를 위해서 그런것이아니라 創作集『黃昏의노래』야말로 作家 李石薰氏에게 잇서서는 아프로의 一層더 大한 飛躍을위한 [illegible] 바꾸어 말하면 將次 그우에 堂堂한建物이 올 터저진 주춧돌이란뜻이엿다. 그러한것을 元來 口辯이 拙劣한 나이지라 주춧돌을 할것을 냅다 쓰레기둥이라고 貶毁을해서는 남의 우슴거리가되엿든것이다.

『黃昏의노래』가 出刊되고 벌서 三年이지냄 오늘날 李石薰氏의 新作『女子의不幸』을읽고 이것을 批評하게된것은 나로서 마음기쁜일이다. 그러나『女子의不幸』은 到底히 『滿』(文學案內所載)이나 『黃昏의노래』에 收錄된 모든作品에 比較하야 文章에 잇서서나 手法에잇서서나 조금도 進展된것이 업다고본다. 世界를 내다보는作家의 눈과 한現實을 把握하려는 作家의態度에 잇서서도 마찬가지이다. 全作가운데 흐르는 고분고분한 말솜씨 平凡한事止 조금도 破綻이업는 [illegible] 李石薰氏 고대로이다. 우리 文壇의 中堅作家諸氏에게 견주어 [illegible] 作家의 才操나 力量이라고는 指摘하는 [illegible] 어엿이 누구에게나 [illegible] 氏이지만 氏는 [illegible] 이 氏에게는 가장큰 弱點이며 損失이 아닌가한다. 眞耶 氏가 [illegible] 가져서나 간다치드라도 어쨋든 숨어 深化한 境地에서 삶을 보여주다면

직그境地에 到達하여잇지 못하다. 그러니 自然 氏에게 남는것은 表面만이라도 才氣煥發한 번쩍하는 맛이업는弱點이고 損失이며 또한 이것은 어느觀點에 서보면 當然한 損失이기도하다. 이번『女子의不幸』에서 氏의 素朴한性格과體臭가端的으로 잘 나타낫는것은 終結에가서 書店 책을 押收당하고 끌리여가는대목이다. 或時 作者自身까지도 이것을 무슨 作家로서의 社會的關心에서 被顯된 意識問題로 取扱할지몰으나 나는 人間으로서의 個人的性格에서 招來한 趣味問題로 認定한다. 이小說에서 본다면 이場面은 作品의主題와 必然的인것은 아니며 또그냥 한 社會的現實로 보아도 그리 大端한事實이 아니다. 그러나作者李石薰氏는 요만한程度의 良心的把握과 男女主人公이 전에 社會運動家엿다는 [illegible]것을 잘 말한다. 卽한개社會的現實을 한거름더 深化한境地에서 構成하고잇지요

『作』家가 모다 그러치만 氏도亦是 [illegible] 우지만 우리文壇의 [illegible]

『自』己의 [illegible] 趣味에 억매여서 徘徊하는것이다.

또 한편 다른立場에서 이作品을 檢討하면 모다 아버지가 달른 아이를 셋식이나 둔 女人의特異한不幸을 그린 이作品에 잇서서 假令 아이들에게 對한

어머니로서의 愛情이나 苦悶其他 더나아가서 그對話에서까지 다른것과는 全然 別世界의 獨特한 表現과 描寫가 잇서야만할것이라고밋는다. 어머니는 누구나 自己의 愛兒를 사랑하며 가난한 女子는 만히 不幸한법이다, 하는이한句節을 數十枚의短篇小說속에다 敷衍할때 特別한 理論과 根據가잇서야만 할것이어늘 李石薰氏의『女子의不幸』에는 고만 가장 先天的인것이 缺如된 탓으로 主人公의 心理와行動이 조금도 讀者에게 속크롭게 주며 먼저말대로 고분고분한 말솜씨 平凡한事止 [illegible] 아닌가한다. 모든創作에잇서서 特異한理論은 嶄新한事實을 生産하는것이요 嶄新

『理』論을 氏는 아직 社會的現實의 積極的인 커다란 構成을 企圖하지안터라도 요러한 야튼 한 이야기나마 재미잇게 꾸미엿든면 才氣煥發한 번쩍하는맛이업는 弱點과 損失이나마 免하엿스리라 생각한다. 천천히 꾸준한前途를 밟으라는 作家 李石薰氏에게 期待하는바 만흠으로

新刊紹介

◆鑛業朝鮮 八月號 京城府鍾路三丁目四七의一 大同出版社 振替京城一〇二一九番 定價廿錢

◆近代女性 八月號 發行所 東京市日本橋區吳服橋二ノ三 日本女性文化協會 振替東京四七一三三一番 定價四十錢 送料一錢

◆保健朝鮮 八月號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郵便局私書函十八號 保健朝鮮社 振替京城二九四六 大番 定價五錢

智異山探險記

智異山行第一日……(六)

碧巖의華嚴寺

李殷相

나는 다시 殿下에 서잇는新羅遺物의 兩個石柱를바라보며 此寺 一千五百年前의 歷史를 생각한다. 山寺도 또한 無常하야 몃번이나 헐리고 불라고 다시짓고 高僧大德이 머물고 지나가고, 헤아리면 헤일수록 慨然한 생각만든다.

緣起를 뒤지매 新羅以後、新羅眞興王朝에 烟起祖師 創하고 憲康王朝에 道詵國師가 三創하고、高麗文宗王朝에 四創하고 李朝仁祖時에 五創하야 지금에 이르럿다한다. 秋江의 記를依하면 寺名을 黃屯寺라하엿든 잇는모양이며 輿城誌에 依하면 法流寺라부르기도 한모양인데 이가티寺名과事蹟이 여러번 變하는동안 여기住錫하야 演說한 大德도 자못그數가 적지아니하다. 海會堂에서 華嚴經을 講說한이는 元曉요、華嚴經으로써 華嚴大學堂을 삼은이는 義湘이엇스며、道詵이 여기와談

禪敎를 하야 叢林의大道場을 만들엇고、實俊이 또한 華嚴經을 結하야 高麗에 그힘을 바친것이다.(以上寺記) 高麗朝에서도 洪慶禪師와及定、祖師王師가、여기와傳敎하고(高麗師法外記)李朝에들어서도 智異山中 佛寺有緣諸師가 다한번식 다녀갓슬것은 毋論이며、그中에서도 中觀海眼、靑梅印悟와 桂坡聖能、惡庵混修이 다 여기와 [illegible]에 힘드린이들이다.(名僧) 그러나 이華嚴寺를華嚴寺되게한이는 누구보다도 仁祖時의 碧巖覺性禪師라 할것이다. 果然 그가아니더면 此寺面

佛敎史上에 [illegible] 偉人이 [illegible] 것이다.

지금 여기 寺門前에 碧巖禪師의碑가서잇고 美術品으로

宣祖八年(一五七五)에나서九歲에 아버지를여히고、十歲에 華山으로들어가 雪默에게서 出家한後 十四歲에 浮休를따라 俗離山으로갓다가 德俗 伽倻

[illegible] 오늘에 어떠한 [illegible] 보고잇슬지조차 疑問일만큼 그는 華嚴寺의 第一한功勞者이며 아니그보다는 華嚴寺의人物만이아니라 李朝佛敎의 [illegible] 또 [illegible] 너와 그는 [illegible] 이라한 어다.

金剛山을 遍踏하고 다시 [illegible] 어山으로 들어오니 [illegible] 도한그는 [illegible] 代身하야 [illegible] 年 入寂 [illegible] 光海時에 [illegible] 甲子(一六二四)에 [illegible] 丙子의亂에 [illegible] 王이 南漢에 [illegible] 여기이절을 [illegible] 僧에 飛檄하야 數千人의

[illegible] 宗元年(一六五〇)에 이절을 [illegible] 二十七年(一七〇一)에는 一大 [illegible] (寫眞은 碧巖禪師碑)

漢詩

暑 梧桐 押 陽　桐岡 考選

三等之二　江西郡[illegible]　金輔鍵

孤秀亭亭立峰陽
千林萬木惣尋常
解將喜信傳牛女
應有靈巢逗鳳凰
材良元首含琴韻
陰好仍兼漏月光
如今若有白居易
一見價增三倍長

工房에드러백혀 흙작난이나합지요

金復鎭

避暑를 왜─아니하는냐고─ 나는 내가 老炭이나기前에는 避暑를 가지안흘것이외다. 그런데 내가老炭이나서 뀌─뀌─한 꼬라구니를 보이고다니게될라면 적어도 三三十年後일것이겟고만 그안에 일이잘못되여서 그안에 어린이炭영이난다고치드래도 그러케 速히는 오지안흘것갓습니다. 李如星兄이 내얼굴만보면 어짜자고 철이아니나고서 늘─흙作亂만하는냐고 꾸지람을 한니다. 이러고보니 나가리 채─철이아니난人物이 벼란간老로 老炭이야 아직냄리야 잇겟소잇가. 아즉서부터 저녁까지 正月서부터 冬至때까지 흙作亂이나 하면서 世上을보내는것이 난人間이 얼른당하안캐 避暑가 當한니까

避暑라는것을 나는濟世라고 解釋하고잇지요

여름철에는 무더웁고 겨울에는 치워지는 것이世上일인데 더위를避하라고한다는것은 世上에서 떠나자는것일것이며 그래도 아직은 永永世上파作別하기시프니 눈가림으로 山이나 바다를 차저가는것갓습니다. 도한편사람에 기달려서 여름에 엇이나니

이것을 사키려가는 경우도엇지안흘것이나 그러나 世上이라는것은 사람이잇고서야 겨우意味를갓는것이니 사람에厭症이난다면 하필여름에만避暑하는라요 사람을厭症한다니할바이나 濟世運動에 도리혀 고마운 [illegible]

…외다. 平素부터 이러케생각하고잇는 나도 얼마前에별안간 金剛山探勝地를 단바람에一巡하여보자는 엉뚱한생각을하여보앗는데 그까닭은 대략이와갓습니다.

이번에 徹底한銅制限으로하여 지금까지 구리를뜨더먹고살며 구리귀신으로 自處하고잇든 나도銅像이라고는 製作하기絶望이니 그리라면 지금까지먹어오든 구리를 먹지못하고 쌀밥을먹는대야 口味도엇슬리는터 남파가티먹는法도 모를것이므로 어런 쌀밥먹는法을 배워볼가하여서 金剛山을찾아하야 摩訶寺 孔山、夢金浦、大川瀧엇이도라다니며 神通한쌀밥先生을차저보자는것이엇지요.

그래도 지금朝鮮에서는 쌀밥그룻이나 제법으로먹는사람은대제로 避暑地로간듯하기도합니다. 그리하라다가 이妙한計劃을中止하고나섯 조고만工房에서 女子『모델』의 水浴姿가를 新鮮한두흘기쥐을 每日가러드리다보고지내기로하엿습니다. 그것은 참

嶺先生을차저가는것도 妙案이아니것은아니나 지금까지 내가固執하든 가룩한志操를 드립말가두려워함이잇스니 내가가장有福하게도 朝鮮에태여난다음에야 옛날의中國사람모양으로 꼭한番金

剛山을보고 죽겟는다 所願을아니갓는대도 金剛山이 朝鮮안에 잇는限 金剛山靈氣가 이름에다 소리도 脈을치고잇슬것이니 내몸이金剛山이매 무슨새삼스럽게 金剛山을차저갈바이엇소

하므로 나는平生金剛山을 보지안켓다고 구든(?)決心을 하여나왓습니다. 그리하야서 過去에도 몃番金剛山巡禮에 參與할 機會가업지안엇스나 그때마다同僚에게 讓步하는美德을 行하엿고 그다음으로 海水浴場으로서 말한대도 사람의눈으로서는 차마볼수업는 벌거숭이를 對하고는안지안흔까닭이랍니다.

서울의 길거리에서 豪華로운衣服을 입고다니는 紳士淑女의벌거버슨 알몸을 나는보고십지안나니 이분들의 肉體는 보잘것업醜가덤것이라고 點치는緣由이지요. 血色을 化粧으로서 겨우꾸미고 허무러진骨盤을 치마주룸으로서 가리든분들의 裸體를보고난다음에야 그야말로 朝鮮땅에서차마하른을더살고십게니까 내가『아직 不能이안돈관』어니 말이지요. 어레저레 나는 自然보다도 文化를 더사랑한다고 외고다님니다.

化粧術 美容法도 화실이 文化의 하나이겟지요? 現代의女子야말로 누구보다도 가장文化를 享樂하는사람인데 어분들을 『朴家粉』時代로 돌려보내다면 文化를 사랑하는 나는 어찌할수업시 눈을 가릴수밧게 업스며 金剛山만하드래도 山은靈이 돌려잇고 바위가잇고 할때로잇고 절에는중이잇고 할때로오 어러타는文化를보려갓든은 업슬것인데 다가요 近來에와서는 金剛山主人이 하도 만히생겨서 제각기宗家싸음을하는데 더우敬症이나게되엿습니다.

金剛山重石盜掘事件을 비롯하여서 金剛山主人들이 어러니저러니들하나 이것도時勢의바람이라 重石덩가마니쫌판다고 치드래도 金剛山이문허질法은업을것이며 또一萬二千峰에서 두어고개쯤 업서진대야 무슨그리대소운이것이잇스며 이것도年齡로 深하여지면 그대로이끼가나고 古色이지고하여서 수수하게될런이다. 무에─그다지是非거리가 될가하는것입니다.

都大體 나는이름에 까지안코서 크나저오나간에 나의工房에서 先生任으로써엽니다.

(寫眞은 筆者)

作家의情熱과 文學의思想性 ③

尹圭涉

그러한意味에잇서 意欲이라는가 趣味란가 어떠한 觀念일지라도 모두이데오로기─의 하나이라고할수잇는것이다.

다시 그世界觀이라는것도 무슨 테─제나 루─트를 가르친것이아니라 文字그대로 世界의直觀이며 따라서어데까지나 直接的인 感覺의資格을 일치안는것을 가르치는것이다.

一部의사람들이 이가튼 이데오로기─라든가 世界觀을 [illegible] 하는것은 오히려 그들이 머리에는 思想에는 어느때나

에서부터 思想을 無限하기爲한 意識的態度에 지나지안는다. 그런 思想이라면 곳 思惟의 機能이며 思惟가 觀念을 通하야 生活을强制하는것이 思想의全部이며 思惟의 形式的機械的인 操斷과 推理가 곳 思想의메카니즘이라고 斷定하야 文學에잇서서 思想은 禁物인것가티 固執세우고잇다(─여기에잇서 어떠한 文學은 無思想이 오히려 그思想이될수잇는 奇蹟을 演出하고잇다.) 그러나 思想이란 決코 一部의사람들이 斷定한듯한 그런것은아니다. 思想에는 어느때나 眞

實(眞實)의把握이 問題되며 眞實은 어느때나 自己自身의 산 描寫를 探求하는것으로서 어느때나 體系와 歷史를 갓는것이다.

思想은 곳 認識인것이다. 이제 우리가 文學의思想性을 이야기하게될제 思想의 이가튼 廣義의 認識論的意味는 더이나 重要한 意義를 띄게되는것이다. 그러나하면 藝術(文學)그自體가 하나의 感性的인認識(非論理的意味의것이아니라 廣義의 認識論的意味에서)임으로써이다.

그럼으로 元來 文學이라 그自體가 思想의表現이며 思想그것이라고하여도 過言이아닌것이다. 다만 文學은 그形態를 卽 認識의樣式을 달리하는것뿐이다. 藝術과思想(思惟또는論理)이全然 別物이라고 생각하는 一部의사람들은 아란드말한바와가티 結局『思想이란것을 抽象的公式으로만 解釋하고잇는』사람들인것이다.

思想은 하나의運動이다. 勿論 그思想(論理)과 藝術은 矛盾이다. 아니 그것은 矛盾對立하므로써 思想은 思想일수잇스며 藝術은 藝術일수잇는것이다. 그러나 結局 藝術도 하나의 感性的認識인이상 思想性이 問題되지안흘수업는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文學의思想性의 意味를 보다正確히 理解하기爲하야 言語의藝術인 文學以外의 藝術에잇서서도 思想性이 存在하는가 아니하는가 또한 存在한다면 어느곳에 存在하는가를 檢討할必要가잇다.

文學以外의 藝術에잇서서도 確實히 思想性은 存在한다. 거기에서도 古典主義 浪漫主義 自然主義 象徵主義等의 『이즘』이 認定될제 이미 어느程度의 思想性을 表現하고 잇는것이라고 할수잇다. 더욱이 쎄─테의 古典主義가 그의 伊太利旅行에서 影響되엇다고 할제 彫刻이라는 藝術이 그의 特殊한 方式으로 思想을 具有하고잇다는것을 肯定할수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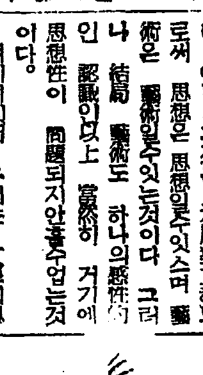
그러면 그思想性은 어느곳에 根據的으로 存在하고잇는가? 로단은 『아직도 하나의藝術家가 技巧인 職人으로서 滿足할수잇스며 知性은 그들에게 必要치안타고 生覺하는것은 틀린생각이다. 反對로 精神的抱擁을 조곰도 갓지안는다면 [illegible] 彫刻家는 어떠한影像을 製作하는데잇서서도 그는 먼저 그의 人間精神을 表現한것으로서 [illegible] 人世에 잇서서의 一般的運動을 充分히 考察하지안코는 [illegible] 全體的이데─를 그의 明哲한意識이란』고하엿다.

어가튼 根源的意味에서는 어떠한藝術이던지 思想을 가지고잇는것이다. 로단은 계속하야 『思想이 藝術의가장 生命이다』 [illegible] 『一切의 藝術은 兄弟이다』 [illegible] 이데─에의 內面的結合가운데 나타나다』하는것이다.

女流短篇

閑夜月 (一)

張德祚 作　崔根培 畵



『곤전마마!』

하고 꾹전쳐소 효령전(孝寧殿)에 뫼시는 늙은 내인 양씨(楊氏)가 쌍가락을 밀어노흐며 가만히 살외엿다.

『곤전마마 차례이옵니다』

그러나 왕비 신씨(愼氏)는 그 말도 귀에들어 오지안는모양, 초점잇는 시선을 쌍가락에 던진채 멍하니 안자겟다.

『곤전마마!』

그래도 대답이업고

『곤전마마 무슨 상심되시는일이 게시옵니까』

그래도 역시 대답이 업다가 민망한듯이 양씨가 윷가락을 다시 집어드는 기척에 깜짝놀라 몸을 걷우며

『참 누구차례든가』

하고 억지로 우서보이엿다.

『곤전마마 차례이옵니다』

양씨는 아까와가튼말을 한번더 뇌이며 공손히 두손으로 받드러는 윷가락을 내미다말고 도

는 입을 벌려 우스며

『황공하오이다. 소인은 또 소인의 알외올말은 궁중에 혹 마마께 거슬리시는점이 잇사온가 하옵고 공연한 애를태웟나이다』

『아니 자네가 한말이라니 글세 무슨소린고, 아마 대단치안은일이길래 나도 벌서이저버렷든거겟지만 다시 한번 말해보게』

『저어 실로 대단치안흔 말슴이옵니다만은……. 대전마마께오서 새로 친밧나이신다는 말을 드라시고 벌써 소원인가 숙의가 직첩까지 나리섯다 하옵기 늙은 소견에 하도 답답하와 아까사 실대로 말슴을 여쭙것이온데 황송하옵게도 곤전마마께옵서는 무슨생각을 하옵셔 호옥 그일로 상심이 되섯나 하옵고 이늘근것의 독죄함을 두려워햇든것이옵니다』

그말에 곤전은 사뭇 당치안타는듯이 찬우슴을 띄우고

『원 자네 별걱정을 다하네, 참 허물업는 자리니 말이지 대전마마께오서는 열살기 사대부(士大夫)의 처첩으로부터 외명부(外命婦)부인네까지 드러신일이 게시오거든 하필 궁녀쯤 돌보시엇다고 상심하고 말고 할리잇나』

그러나 어러케 말하는 연산비(燕山妃)전씨의 마음은 원만과 질투로 뒤범벅이 되엿다.

로 거두어드렷드니

『곤전마마 살외옵기 황송하오나 아까소인이 살외온 말슴은 그중에 호옥 거슬니오심이 계시지나 안흐시온지 진정으로 근심이로소이다』한다.

『곤전마마 부대 상심마옵소서. 그저 소인의 천가 가볍사와 곤전께서 나리시는 성은만 생각하옵고 달리아지에 늙은귀에 들리는대로 황송스럽게 엿줫뿐이오니 부대상심마옵소서』

전조(前朝)부터 궁중에 서종하여 궁내의 알륵파여러가지복잡한문제를 겪을대로 겪근 어왕비의 심사해하는 태도의 자래는 [illegible]

『아니 그 무슨소린가 아까자 내가 한말을조고 내가 상심을 하다게』

하고 뒷짓옷는 왕비의 자래는 엄연한 위의가 갓추어잇섯다.

二

곤전 신씨는 좌참찬(左參贊) 신승선(愼承善)의 딸이엿다.

성묘 무신 이월초엿새날(成廟戊申二月初六日)세자빈으로써 이 궁중에 드리온지 벌써 이십년이 가까 십칠년 부왕(夫王)의 회포와 복잡다단한 궁내의 알륵은 그로하여금 어떠한자리에서든지 자기의 순수한 감정을 노출치못하게 가로처주엇다.

왕의 음하며 날로 더하고 왕의총애가 이여자에서 저여자로 저여자에서 다시 다른여자에게로 옴고 옵길적마다 그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신칙하는 내인들에게라도 털어노코 호소하고시퍼도 몃번이나 벼르고 천번도념을마던만 왕비는 장중하여 한맛

婦人病이 完治되여 七年만에 生男

(德川) 金福女

저는 貴社의 恩德으로 去十日에 健全한男兒를 分娩하엿습니다. 기대리고기대리든 어린애를낫스니 그때의기쁨이야 무엇이라고 말슴을 다엿출는지요. 結婚한지 二年만에 當時三個月治療로 完治된줄로만미덧든 라질로 腎炎에 별로대하할이나 압픔도 느끼지안엇는데 어느듯慢性症이 되어 그대로 七年間不姙의 原因이 되어잇섯슴에는 자못놀래엿습니다. 僞僻이 『와세돈球』라는 名藥으로治療하여 完快되엿고 十個月間의 姙娠期에도 無事히 지내고 順順히出産한에이르러 새삼스러히 생각되는바는 婦人藥은 반듯이信用잇고正確한것을 採擇하는것이 제일安心이라는것입니다 『와세돈球』는婦人病의 最高藥으로써 이以上 더잘듯는 藥이 또 잇스리라고는 생각되지안습니다……. 體驗하여보고 비로소처음 體得한 重한問題이엿섯습니다

帶下症의 完治

家庭不和의 原因이된

(順安) 姜文淑

이기쁨을 생각하면 무엇무엇에通함지안코서는 견듸기 어려워 抽筆입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붓을듭니다. 品行이 단정한男便은 내가結婚한후, 갑작히 대하불이만어지고 惡臭가 심함으로 저에게무슨秘密病이나 잇지안는가 疑心하기시작하야 부부파가터 따뜻한는 家庭은 一變하야 暗澹해 지고 여러가지로 만흔약을 먹어보기도하고 挿入藥도 無數히 使用하야 無실의 혐의를 풀여고애를썻스나 애를쓰면 쓸사록 매한층은 심하여가고 허리가 압흐파 아울러 수족은 冷하여지고 거기다 현기증과 頭痛은 남편도 甚하여서 夫婦間의방사에도 厭症을 感하며…이와同時에 男便은 카페─와花柳界出入이頻頻하여저서 집에도라오면 모두가네탓이라고 차고대리며 야단이엿섯습니다. 그러던차에 東京가잇는 四寸동생에게서『와세돈球』라는 약이매우잘듯는다는말을듯고 곳사다가 使用해보앗드니 대하물은 점차적어지고 허리가 따뜻해지며 惡臭도 어느듯업서저 氣分이 爽快해지고 顏色이조화짐을따라 自然스러히 夫婦愛도 倍前하게되여 이다幸福의 家庭이되엿습니다. 이다 『와세돈球』의 恩澤이라고, 感謝하여마지안는바입니다

淋毒대하증이 낫고 顏色도 어여뿌게

(天安) 尹龍順

淋病이 그리甚지안흠으로 그대로 내여버려둔것이 原因이되어 고름가튼것을 가진 악취잇는 대하물이 흐르고 거기다爺증이甚하여서 늘淋道하는藥을먹다 고 白金灰(?)을넣어도 옷속옷속치웁고 그러다가는 淋疾대하를 어 피와서거서 흐르게되면 內腹이下腹이 켱기고 아프고(中略)니다. 醫師는 手術을권하나 그것도 여러가지事情으로 如意케하지못하고(中略)昨年十一月에 男便이 다니는 會社重役夫人이『와세돈球』를써보라고 말슴하므로 使用하여 보앗드니 매우 顏色이 조와지고 대하물도 보이지안코 며 血色조흔 健康體가 되엿슴니다

『와세돈球』는 깨끗한미묘한 개쾌한 약이니 한개물국 부속에 넣고 주무시면 조곰도이상한기분을 주지안코 약이곳속아서 병균에 직접작용하야 부인병을곳낫게 만들며 약기운은 몸의신에퍼저서 자궁속에 잇는 병균때문에생긴 모든증세를낫게 하는약입니다.

◇……◇

요새에 더위를 몸시라시며손발이차고 아래와 허리가 쑤시고땡기며 아픈분, 냉증이흐르는분, 주부가쑤시고 가려우며 오줌이자진분, 부부화합에 자미를 모르시면『아해』를 못낫는분은 조금도 주저말시고『와세돈球』로치료하시사 근치의 기쁨을어더주시기바랍니다.

◇……◇

약가는 十二日分…一圓二十錢 廿四日分…二圓卅錢、卅六日分…三圓四十錢이오니 본보 애독자의게는 병세질문에 친절히최선의방법을 알니워드리며 우표삽십전 선송하시면 남어지송료를 부담하고 대금인환으로도 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帝大病院서쓰는약을 처음으로간편에제공한 와세돈球

저는이렇케부인병이근치되엿습니다

자궁속에병균을남겨서는 부인병은 낫지안는다

東京谷田病院長醫學博士 谷田誠

대하증 냉증이 나오면 부인병에 걸닌증후를 라든가 또는 의사가권하지안는 거문비나는 녯날약을써서 오히려 병세를 더욱 중하게 만들어가지고 비로소 병원에 차저오니 참으로 딱한노릇입니다.

으거나 또는 월경이 고르지못하든가 월경때면 몸시 알든가 아래배가 몸시 쑤시고 압프고땡기며 허리가 끈어지는것가티 절니고 압프면서 속옷을 적실만치 대하물이 흘을때든가──이와가튼 증세가 부인병때문에 생긴증세인줄을 몰으고 그병근을 치료치안는때문에 부인병을 만성고질로만 들어가지고 비참한생활을 보내시는 분이만슴니까!

즉 부인병은 병균이 자궁속에 들어가서 진물느게하고 흥진을만들며 붓고 압흠을 느끼게 하여주는것이므로 그곳의 병균──즉 자궁속에 잇는 병균을 모조리 죽여야만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약조류를먹어서 곳치

그러나 내병원에 진찰을 바드러온 중하게된 부인병환자들이 백발백중으로 단시일에 근치되여 감사의말슴을 마지안흔 의사로서의 기술보다도 완전한 치료효과를 가진 부인병근치약『와세돈球』의 힘에잇다고 밋는다

더구나 매일 병원에못다니는 사정이잇는 환자께 자태에서 사용케하엿드니 역시 병상치료와 독가튼 치료효과를 어덧스니 專門醫師諸氏께서는 물론이요 일반자택치료환자께서는꼭『와세돈球』를써서단시일안에근치식혀버리십시요

『女性의新生理學』

河合 村木 兩博士著 『女性의新生理學』

동지하시는대로조선문으로쓴 것을 거저드립니다

三共 SANKYO

脚氣의治療와予防에 疲勞衰弱의防止와恢復에

ビタミンB의始祖

オリザニン 오리사닌 (登錄商標)

其他의適應症

食慾不振─便秘

妊娠─産褥─授乳時

自家中毒─成長障碍

熱性疾患時等

說明書進呈

粉末、錠劑 液、エキス 注射液各種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D-3-8

養兎 特輯產業

皮革의不足으로 兎皮의需要激增
養兎를하려면지금부터

皮革及毛皮가 軍需品으로서 重要한것은지금새삼스럽게말할것이업슬것이나 어것이資源으로서 樂觀을 許하지안는點에 對하야 그考究는 絶對로 必要한것이로 戰時體制가漸次濃厚해가는 今日에잇서서 益益其必要가 痛感되고잇다 이皮革에 對하여서는 代用品으로 水產方面에서 研究하야 實際에 着手하고 一日이라도 速히 그것을 實現하도록 各專門家의손에依하야 行하여지고잇다 그리고 毛皮도 所謂스페어를 맛어야ㅡ의 可及的良質인 製品을 生產하야 어에當하고잇는것이다 此等은 모도가專門技術家에依하여서만 行하고잇는 國策遂行이나 그러나 우리는 어것만을 저다리고잇슬수는업스므로 어에對하야 가장 優秀한 方策으로서 地方農村의 養兎增殖이必要하다고생각한다 그래서 養兎의 副業的經濟價値와 有利性을 强調하고 一般에게 아직알려지지안흔 種兎의購入方法及兎毛皮나 兎肉의 販路의 그輪廓이라도 그려 여方面에 만흔 關心을가진 諸賢에게 指針이되게하자는것이 本養兎特輯을 發行하는所以이다

我國에서 養兎에 依하야엇는 兎毛皮는 그質에잇서서 決코諸外國에 떠러지지안는다 오히려 優秀品을 내고잇다고 하여야 맛당할것이다

現在最近까지의 調査로는 米國經濟이 그兎毛皮의世界的市場이되여 日本의兎毛皮도여기서處分되여잇는데 그製品은 依然優秀한 地位를占하야 注目을끌고잇섯다

大正十年頃一時養兎熱이 勃興하엿는데 이것은 一時的民間의道樂으로行한것이만코 當時農林當局으로서도 그러케 全力을 傾注한것은 아니엿다 그러나畜產試驗場等이 研究的으로 行하고잇섯다는것이 事實이나 經費其他의 點으로 獎勵가 保留되여잇섯스므로 곳이事業은 豫想과가튼成功을보지못하엿다

今日歐洲에서 이養兎業이가장 發達하고잇는곳은 獨逸로다음에 佛蘭西 蘇聯等이잇다 이것은歐洲大戰當時 軍需品으로서의 皮革毛皮가 極端한缺乏을 招來하야 非常히 悲慘한 狀態에떠러저 버렷다

이때에 獨逸은 힘테부흥計畫을 擴張하야 一般地方의 農村에强制的으로 이養兎를行케하엿다 어것은 兎類의 繁殖力旺盛과 短期間에所用이 되므로 戰時下에이러한 困窮을救하는 國策으로서는 이以上더조흔것이 업다고생각한까닭이다

이에依하야 蛋白質의 食糧缺乏을 緩和하는一方 毛皮도軍需品을補給할수잇는 一擧兩得이엿다 將來獨逸은 이養兎를 全國農村에 普及시키고잇다 農村의副業으로 養鷄를하는것보다도簡單하고 有利한것이다 現今獨逸에서는 每年十五百萬의 增殖을 보고잇다 濠洲는世界에서 가장 大量의 兎毛皮를生產하야 一年에一億以上이 되여잇고 歐洲全體에서는 三億匹以上이 되여잇다 內地에서는 長野縣이 盛하야 一年에一萬匹을내고잇는데 그것도 農家에서 數匹씩 副業으로 飼育하고잇는程度이나 이러한頭數가 每年增殖하고 잇는바 이것을 全國的으로 動員하야 行하게된다면 千匹萬匹가량은問題업슬것이라고 各專門家는 말하고잇다 兎革은 全國에서 지금까지에는 平均 七十萬枚를產하고엇다 그中 輸出이 百三十萬枚가량이다

兎毛皮의 利用은 아무래도被服이第一이다 그런데 이兎毛皮가重要視되여잇는것은 溫度를잘 保持할수잇는것이다 防寒用으로서어良好한 性質이 잇스면勿論 조흔나 어兎毛皮는 重量이輕하다는 長點을 가지고잇스며 또 比較的 低價이라는 特長을 가지고잇다

이래서 兎毛皮는이以上더 엇는 特長을가지고잇스므로 軍部의需要는益益增加하고잇슬뿐인데 我國은 大陸長期作戰에 臨하고잇스므로 이兎毛皮의 必要는明若觀火의事實이다

또兎毛皮의 保温試驗成績을示하야 如何히이것이 優秀한性質을가지고잇는가를 살펴보자 어것은 단지다음條件下에잇서서 『랄포-드』氏가 實驗한것이라는것을 附言하여둔다 그것은 攝氏八十八度에 熱한物質을 毛皮及比較할纖維에싸서서 攝氏十三度까지 溫度가내려 오기까지의 時間을본것이다

種類	冷却에要한時間
兎毛皮	一、三一五秒
海獺毛皮	一、一九六
生糸	一、一八四
羊毛	一、一一八
綿	一、〇四六
亞麻	一、〇三一

兎毛皮는 어저러 溫度를 保有하는데는 그以上이업는것이다 從來에 此種의 防寒의 不備로 因하야 作戰上 意外의 不利를 甘受할수밧게업섯다는 戰爭은 世界各國에 非常히 그數가 만타 저有名한 나폴레온의 露西亞侵入의會戰 卽 西曆一八一二年의 일이다 나폴레온軍은防寒不備로 因하야 慘敗한것이다

皇軍이 滿洲事變時에 防寒服이 過重하엿다는것도 今後充分히 考究치안허서 아니될일이다 行動의 自由가 무거운防寒服으로因하야 長時日동안 支障을밧는다는것은 重要한問題로 默過할수업는일이라고 생각한다

大陸의 氣候는 朝鮮의그것과는 天壤의 差로 冬季嚴寒時의 寒氣는 實로 零下四十度에까지 達할뿐아니라 風速一米一、五米를 增加함을 따라서 寒氣는 더욱 增加되는것이므로 寒風이 모다치는 大陸戰線에잇는 軍士의 勞苦는 想像할수잇는것이다

어에對한 被服材料로서 兎毛皮는 着眼되여 잇다 어意味에잇서서 伊太利도 國策的 意味에잇서서 養兎를 獎勵하고잇다 毛皮를 除去한後 肉은 食料로 세이지 其他食用으로 保存할수잇는것이므로 養兎는 經濟的知識과 어러한養兎의 [illegible]을各農村에서 組織하고 圓滑을期할 수 可할것이다

採毛採皮의 經濟的根據

今日에잇서서 家兎의主要한利用 [illegible] 은 어것을大別하야 採皮用家兎와 採毛用家兎의 두種類로分類할수잇는데 採肉本位의 經濟價値는獨立하야 存在할수업는것과도 採肉本位에限定되여잇는 品種이잇는것이 아니므로 採肉을 主目的으로하는 養兎의 副業은 存在하지안는다고하여도 조흘것이다

그러데 兎의毛皮는 最近毛皮染色術의 進步함을따라 急激히 需要가增加하야 목도리, 外套, 用되여 海外에輸出되는量은 顯著히增加하야 昭和一年末부터 三年春까지 神戶, 大阪, 橫濱에毛皮商이 取扱한 兎毛皮는 約二百十四萬枚에 達하엿다 以上外에 앙고라種가튼것은 採毛用으로서 珍用되여 毛는 高貴한毛織物의 材料로서 高價로賣買되고잇다 採皮用家兎는 文字가보이는바와가티 毛皮를採取하므로써 目的으로하는 兎로서그種類도 近十種이나 되는데 普通經濟的家兎로서 [illegible] 品種은 먼저 『이태리안』種과 『메리렌』種의 白色兎와 『친지라』와 『벨잔』等이잇다 그 다음에는 『레기스』種이라는것이잇서 毛皮도相當히高價로 取引되거는하지만 지금까지의飼育成績으로보면 그繁殖率이 比較的 困難하야 結局一般的이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最近 巨大種이라고稱하는 『이태리안』種 『메리켄』種은 繁殖率等도 困難치 안코 成績이 조하서 十個月만 經過하면 一貫乃至一貫五百匁以上이 되므로 (普通品種은 大槪十個月로七八百匁)將來는 採皮種으로서 本種이有利性을 多分히가지고잇다

먼저 此等毛皮의價格은어떠한가하면 大體普通이 一枚에七、八十錢어라고보아도조흔데 牛體一貫以上이되면 一圓을 超過하고 特級만되면 一圓五十錢가량이다

그러면 一個年에어떤程度의利益을낼수잇는가하면 一年에母兎一頭에서 繁殖하는數를三十頭로하고 雄一、雌三를設備하야一個年에九十枚에 毛皮를 生產하는데 어것을生體六百匁로보아 一枚平均六十錢 肉二百五十匁 約五十錢 卽 一頭에 一圓을 標準으로採算한것이다

農村의養兎舍

다음에 앙고라兎의採毛는如何한利益이 잇는가하면 앙고라兎는大體平均하야 一頭에서 一個年에六十匁以上의 毛를採取(六十匁=半폰드)하는데 어것을一폰드에五、六圓의 價格으로販賣한다고보면 大差가 업슬것이데 어根據는 누구나 容易하다고생각하므로 管理方法과 採毛技術에熟練하면 八十匁 九十匁의採毛를어들수잇고 또品質이 良好해지므로 八、九圓或은 一폰드十圓가량의 品質의 採毛가 可能하나 처음부터 그것을 바라면 期待에 어그러지기가 쉬우므로 一頭一個年 半폰드 二圓五十錢의 生產을 豫測코 着手하면 安全할것이다

以上은採皮採毛用家兎의 收益點을 말하엿스나 모두飼料에는 絶對로 돈을드리지안는다는것을 條件으로 지킬수잇다면 成功일것이다 그것은要컨대 여러가지雜草와 廢物을貯藏하여두엇다가 給與하는것뿐계는 업슬것이다 以上에서 말한收益은 安全容易한根據에서말한것이므로 冬期飼料야 얼마간費用이 必要하다는것을 생각하면조흘것이다

種兎購入•採毛皮의販賣及

從來에는 養兎를 往往副業的으로 行하여왓기때문에 失敗를 본 養兎家가 적지안핫스므로 第一먼저 모든 採算根據와 養兎에關한 充分한 知識을 어든後에 着手하여야할것은 再言할必要가업슬것이다 그런데 間或時局關係로 有利케된 養兎가 一時的이 安定될때에는 兎毛皮의 [illegible] 것이나라는 [illegible]가전혀업지안흐나 어것은 杞憂라고아니할수업다 그러므로 決코 그러한 念慮를할必要는업다 兎毛皮는 平年五、六百萬圓의 對外輸出을하고잇슬뿐아니라 國內需要도 [illegible] 는事實이업고 將來에잇서서도 國內需要는 一層增加할傾向에잇스므로 販路의點을 念慮할必要는업고 모든條件만 具備하엿다면 一日이라도 速히着手할것이다 從來에販路에 對하야 意外로 取引에困難한結果를본것은 販路에對한 智識이 缺乏하야 仲介商人等의 不當한利得에依한것도 相當하엿든모양이다

種兎購入은勿論 採毛皮의 處理에至하기까지 一切을京城臺來町一丁目朝鮮副業協會에 問議하면 親切히應해줄것이므로 여기에는 詳細한것을 略하기로한다

養兎에關한一般參考書

一般參考書

- 副業と其の方法 定價一圓七十錢(送料共) 京城府臺來町一丁目 朝鮮副業協會 振替京城九三七番
- 高橋榮治著 家畜飼養學 定價二圓三〇錢(送料二四錢)東京市神田區錦町一丁目 振替東京六二九四 誠文堂
- 馬俊雄著 アンゴラ兎の飼ひ方 定價一、二〇(送料九錢) 東京神田神保町一の五〇 振替東京七六〇三 養文館
- 家畜の飼料とかひかた 定價六〇〇(送料二四錢)西ケ原刊行會
- 永田厚平著 最新養兎法 定價五、〇〇(送料二四錢) 上同
- 最新兎の飼い方と加工、利用法定價八〇錢(送料錢六錢) 東京市神田區錦町一丁目 振替東京一三一九〇 明文堂
- 芝田清吾著 兎の蕃殖 定價三、五〇(送料三三錢) 上同
- 家畜疾病豫防學 定價三、八〇(送料三三錢) 上同
- 畜產學原論 定價五、〇〇(送料三三錢) 上同
- 畜產學汎論 定價八〇錢(送料九錢)東京市神田區一ツ橋 振替東京二六二四〇 岩波書店

商品市勢

▲果實類

品名	產地	單位	價格
苹果(旭)	慶北	三貫	[illegible]
〃(祝)	〃	三〆	[illegible]
〃(旭)	〃	三貫	[illegible]
〃(〃)黃	〃	[illegible]	[illegible]
〃(倭錦)	〃	[illegible]	[illegible]
〃(國光)	鎭南浦	四貫	[illegible]
바나나	臺灣	十貫	[illegible]
桃(白桃)	羅州	三貫	[illegible]
〃(小林)	〃	[illegible]	[illegible]
〃(土用)	〃	[illegible]	[illegible]
〃(菊水)	〃	[illegible]	[illegible]
葡萄(잔)	廣岡	一貫	[illegible]
〃(마스캇)	〃	[illegible]	[illegible]
夏蜜柑	伊豫	十貫	[illegible]
梨(바-드렛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洋)	慶北	[illegible]	[illegible]
〃(市原)	〃	[illegible]	[illegible]
〃(長十郎)	〃	[illegible]	[illegible]

▲農產加工品

品名	產地	單位	價格
麥稈眞田	朝鮮產	二反	[illegible]
經木眞田	內地產	〃	[illegible]
杞柳	朝鮮產	一貫	[illegible]
箒草	〃	〃	[illegible]
漆	朝鮮產	〃	[illegible]
椎茸	內地	〃	[illegible]
〃	朝鮮產	〃	[illegible]
楮(黑皮)	〃	一斤	[illegible]
楮(白皮)	〃	〃	[illegible]
乾栗	內地	十貫	[illegible]
乾葉蕨	朝鮮產	百斤	[illegible]
荏子油	〃	一罐	[illegible]
胡麻油	內地	〃	[illegible]
蓖麻子油	〃	〃	[illegible]
棉實油	木浦	〃	[illegible]
絞油	內地	〃	[illegible]
乾蓮根	〃	一斗	[illegible]
고사리	朝鮮產	百斤	[illegible]
干柿	〃	一貫	[illegible]
干瓢	栃木	〃	[illegible]
蕃椒	朝鮮產	百斤	[illegible]
〃粉	各地	〃	[illegible]
〃	〃	〃	[illegible]
麥粉二號	京城三匹	〃	[illegible]
〃三號	〃	〃	[illegible]
〃日の出印	〃	〃	[illegible]
馬鈴薯澱粉	北海道	三貫	[illegible]
薄荷腦	內地	一罐	[illegible]
柿	高三斗	[illegible]	[illegible]
木茸	[illegible]	百匁	[illegible]
蒿草스리퍼	[illegible]	一枚	[illegible]
生松脂	[illegible]	百斤	[illegible]
栗虫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穀用叺及繩

品名	規格	天	地
指定叺 京畿	一枚	[illegible]	[illegible]
〃 忠北	〃	[illegible]	[illegible]
〃 忠南	〃	[illegible]	[illegible]
〃 慶北	〃	[illegible]	[illegible]
〃 慶南	〃	[illegible]	[illegible]
〃 榮山浦	〃	[illegible]	[illegible]
賣價 全南	〃	[illegible]	[illegible]
〃 京畿	〃	[illegible]	[illegible]
繩(叺繩白十五尋)	米自二分八厘至四分	[illegible]	[illegible]
穀用繩(玄)	米自四分二厘至四分五厘	[illegible]	[illegible]

▲穀物

品名	單位	價格
玄米三等	一石	[illegible]
白米一等	百キロ	[illegible]
大麥(上)	一石	[illegible]
〃(並)	〃	[illegible]
小麥(上)	〃	[illegible]
〃(並)	〃	[illegible]
大豆(龍山)	〃	[illegible]
〃(金浦)	〃	[illegible]
〃(長湍)	〃	[illegible]
小豆(龍山)	〃	[illegible]
粟(鐵原)	百斤	[illegible]
胡麻(滿洲)	〃	[illegible]
綠豆(〃)	〃	[illegible]
荏子麻(〃)	一石	[illegible]
黍(高粱)	〃	[illegibl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鷄卵	一貫	[illegible]
生鷄	〃	[illegible]
生豚	〃	[illegible]
生兎	百匁	[illegible]
鷄卵	百個	[illegible]
鵝鳥	十羽	[illegible]
蜂蜜	一罐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豚毛(原毛)	十斤	[illegible]
〃(撰毛)	一斤	[illegible]
雉羽	一羽	[illegible]
毛	一貫	[illegible]

▲家畜飼料

品名	規格	價格
粉末配合產卵鷄用	一二五斤一號品	[illegible]
〃	二號品	[illegible]
〃 雛用	[illegible]	[illegible]
〃 中雛用	[illegible]	[illegible]
〃 三種配分粉餌	[illegible]	[illegible]
成鷄用四種配合粒餌	普	[illegible]
〃	上	[illegible]
〃	特上	[illegible]
〃 三	[illegible]	[illegible]
雛用三種配合粒餌	[illegible]	[illegible]
李스마	一〇〇斤	[illegible]
玉蜀黍(丸)	[illegible]	[illegible]
〃(中割)	[illegible]	[illegible]
〃(粉末)	[illegible]	[illegible]
高粱(丸)	[illegible]	[illegible]
〃(粉末)	[illegible]	[illegible]
玄米	五斗	[illegible]
屑麥	[illegible]	[illegible]
大麥	[illegible]	[illegible]
無砂糖	七五斤	[illegible]
骨粉	一〇〇貫	[illegible]
魚粉	九〇斤	[illegible]
가지라	一〇〇斤	[illegible]
하스	八五斤	[illegible]
干鰯	一〇貫	[illegible]
三菱完全配合中雛用	三五斤一期用	[illegible]
〃	二期用	[illegible]
成鷄用	一二五斤	[illegible]
三井成鷄用	一號	[illegible]
〃	二號	[illegible]
中雛用日配	普	[illegible]
〃	特號	[illegible]
初雛生用日配	[illegible]	[illegible]
成鷄基礎飼料	一〇〇斤	[illegible]
三種混合	一二五斤	[illegible]
三種粉飼	〃	[illegible]
魚粉(特上)	一五貫	[illegible]

各地旱騷는絕頂에

慶南道內被害面積 四萬餘町步豫想
食水飢饉까지念慮

【慶南支社發】경남도내에는 오래동안 비가오지안허서 수원부족한 논은전혀경작을못하게되엇스며 또 수원이 비교적풍부한 논에는 충해가 우심하야 각지농촌에는 한발과 충해의 이중고에 울고잇다함은 수차 보도한바인데 그후도 비는 오지안코 무더위만 계속되어 수분이 조금씩 잇던논도 바싹말러지고 수분이없던논은 귀열이 심하야가며 또 낙동강연안 오개수리조합구내에서 발생한 충해를비롯하야 각지의 수분이 비교적 풍부한 논의 피해도 날로심하고 전작(田作)즉 조속(粟) 콩(大豆) 채소(菜蔬) 면작(棉作)등의 발육도 극히 불량하며 지방에따라 음료수(飲料水)까지부족되어 야단들을하고잇는데 농작물의 피해를 각방면의 자료를 종합하야 추산하건데 논바닥이 귀열된것이 약일만여정보에 달하고 논에 물이업서 귀열에 직면된것도 이만정보가량되며 또충해를 당한것도 약일만여정보가량이여서 결국재해를당하고잇는것이 약사만여정보에 달하므로 벼의상태가 작년동기보다 이할오분이상이 불량하고 전작도 이할내지삼할가량불량하야 십여일안으로 비가오지안흐면 농작물의 대부분은 수확이업슬뿐아니라 음료수기근에 큰고통을 바들터이라고 각지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는등 비오기만고대하고잇는데 금후의천후가 주목된다고한다

順川地方도尤甚 農作被害莫大

【舍人】기보―칠월상순이래대한발이계속되어 평남순천지방은 벌서 사카부의두태(豆太)등속은 거이 전멸에갓가워서 지금은비가와도 오할이상은 감수될형편이며 그리고 수리조합구내에서도 병충해가 만연되어 도에서는 전직원을 구내에 순회케하면서경계중이라고한다

淳昌農家極不安 今年農形에重大打擊

【淳昌】전북순창지방에도 오래전부터 한발(旱魃)이계속되여일반농가의 인심이대단 불안하던바 최근농작물이 한참성장하여가는이때에 와서는 연일백도를오르나리는 폭서(暴暑)와 의연계속되는 한발로인하여 지방의인심이 더한층 흉흉하다 전곡물(田穀物)은 벌서삼할이상이 고사되는 현상이오 도처음료수까지 부족되여 급수쟁탈난리를이르키여 일반농가에서는 극도로 불안에싸여잇다고한다 아프로십일내에 적당한강우가업스면 금년농형에 중대한타격이 밋치리라고한다

四百餘農民亂鬪 二十餘名死傷
旱騷가나흔金泉郡下의不祥事

【金泉】지난구일오전열한시경김천군감문면이천시장(金泉郡甘文面梨川市場)부근 감천(甘川)에서 농민사백여명이보(洑)일을하다가 편싸움이되여 현장은 선혈이임리한 수라장을이루엇다 그내용을조사한바에의하면 그감천부근에잇는토지가 김천군(金泉)관내에 이천여정보와선산군(善山)관내에삼천여정보라는전답이 모두 감천물을인수하야 경작을해오던터인데한내(川)에아포보(牙浦洑) 습례보(習禮洑)라는 두보가잇다 아포보는 김천군관내토지에 인수되고 습례보는선산관내 토지에인수된다는바 물이흔한해에는 아모탈업시 지나오던것이 미증유의금년한발은 별여물계속하여 전답이모두 고갈되므로 일반농촌 민심이흉흉하던중 사백여명농민은 매일보에나와 보를지키고 파서 물을인용하든바 상류보를 깨치파면 하류물이업서지고 하류보를 깨치파면 상류물이업서지는터로 서로다투어파다가 싸움이 되엿다는데 사백여명중격전에 중상자가이십여명이나 나게되엿스며 한명의사자까지 내엿다는 근년에 처음보는 엄대참극을 연출하엿다 어디보를접한 김천경찰서(金泉警察署)에서는산기(山崎)사법주임이하 어십여명 무장경관대가 출동하엿스며 선산(善山)경찰서에서도 서장이하십여명경관이 현장에급행하야 당지소방대에 응원을어더 제지하야 싸움은중지되엿다는바 죽은자는 선산군선산면습례동이동기(善山郡善山面習禮洞李東基)라하며 중상을당해생명이위독한자는 다음과갓다는바 부근주민의말을드르면 그보를로하야 최근십년동안에 세번째싸움이 잇섯다는데 금반싸움이 제일격심하다한다

重傷者氏名

朴來澤(三〇) 崔德伊 朴來夏 鄭德伊 崔德三 方昌灝 崔廣春 李光烈 張一鳳 韓永相 金達同 李一同

物價高를憑藉하고 不德家主들이跋扈
咸興借家層에큰重壓

【咸南支社發】함흥부내일부부덕(不德)한 가주들이 무리하게 집세(家賃)를 올리는 경향이 잇서 차가인들은 그중압에 견딜수업다는 진정을 누누히 서면으로 함흥상공회의소에 하소하야오는것이 연일끈이지 아니하다고하는데 이에대하야 상공회의소에서도 중대한문제로생각하고 곳 부내 차가실정을 조사하는동시 가주들을모아노코 주의를시킬터이라고한다 즉 가주들 가운데는 시국상 물가가 모두올랏다는것을 어르고 집세도대번에 어할까지 올렷다고 하는데 중소상인 사라리맨들은 그러치안허도 물가고의고통을 맛고잇는데 설상가상의욕을 보고잇다고한다

海州測候所서 氣象觀測開始

【海州】기보―얼마전 신축을마치고 내부의 거게기구장치중에 잇던 황해도해주측후소(海州測候所)는 준비가 완료되엿스므로 드디어 지난십일오전영시부터 관측(觀測)에 착수하엿다 이측후소의 업무내용은 보편일반기상(氣象)에 항공(航空)어업(漁業)등의 기상을 관측하야 방면으로부터 기대를가지게한다

車中에虎疫容疑者 平壤驛에서도大騷動

【平南支社發】구일오전여덟시봉천(奉天)역을 떠난 남행차중에서 호열자(虎列刺)용의자가 발견되여 봉황성역(鳳凰城驛)에서 하차를시기고 그냥 남하하여와서 오후세시에 평양역에도착하엿스므로 평양역에서는 열차전체를 대소독하는동시에 평양역에 하차한승객에 대하여는 엄밀히 건강진단을 하는등 대소동을 하엿는데 그 용의자는 호열자가 아닌듯하다는 보가잇섯다

工業用水道設計 技術的缺陷發見
群山府서唐惶變更中

【群山】군산전부민의 열망으로 기채백팔만여원의 인가(認可)를 어더 공업도시(工業都市)건설계획의 가장요소인 공업용수(工業用水)시설에 대한 착공식(着工式)을 지난오일에 거행한후 이어공사에 착수중이던바 근일에 이르러 상사(上司)로부터 동공업용수 시설의 설계(設計)에잇서 기술적결함(技術的缺陷)을 발견지적하야 왓스므로 군산부(群山府)에서는 극도로 당황하야 방금 극비밀리에 동설계를 변경중이라는바 그결과가 가장 주목된다고한다

平北道에서도 虎疫豫防注力

【新義州】요지음 북지 방면에서 호열자(虎列刺)가 발생하야 봉천에까지 미첫다는것은 이미 주지하는바어니와 평안북도경찰부위생과에서는 이에대한 방역진을베풀고 예방주사를 시행하는동시에 공용포지(豫防接種)을 피하라는「비라―」를 산포하고잇다한다

大田府勤勞隊 日二時間奉仕

【大田】대전부에서도 금번 근로보국대가 결성되여 부윤이대장 각과장이반장으로 전부여섯반에나니어 매일근무시간외 두시간씩 근로봉사작업을 실시하게되엿는데 각반의 실시요항은 다음과갓다

◇第一班(會計課、[illegible])[illegible] ◇第二班(衛生課、勸業課、水道[illegible]) ◇第三班(土木課)[illegible] ◇第四班(內務課、戶籍課)[illegible] ◇第六班([illegible])[illegible]

都賣物價遂安定
牛皮、茶等은大幅으로下落示現 七月中元山港物價動向

【元山】천정모르게 오르기만하던 물가도 정부의 물가앙등억압정책바람에 어제는 더 오르지못하고 거의 정착된상태를보이고잇다 즉 원산에잇서서 지난칠월중의도매물가를 원산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바에 의하야보면 곡류 조미료 음료 의료품 금속 건축재료 연료 비료등 조사품목중 약간 오른것은 [illegible] 떠러진것은 [illegible] 차(茶) [illegible] 으로 떠러진것을비롯하야 [illegible]

大興小學新築費 起債認可

【大田】대전부(大田府)소화정 대흥소학교(大興小學校) 증축공사비 [illegible] 기채 인가되엿스므로 [illegible]

自己도自殺企圖
己妻를殺害한後 夫婦싸움이나흔慘劇

【海州】지난구일오전세시경에 평산군 [illegible]

田作物에大害 北靑三水地方도

【咸南支社發】함남도내각지방에는 근이십여일동안이나 비가오지안허 [illegible] 전작(田作)들이 [illegible] 특히 북청(北靑)삼수(三水)지방에서는 [illegible]

新築中家屋崩壞 人夫等五名死傷
嶺美市外의大騷動

【嶺美】지난칠일오후다섯시경 평북영미시외 전초마을에서 새로짓던집이 무너저서 인부등여섯 사람이 치엇는데 부근사람들이 응급구원으로 다섯사람은 구하얏스나 김봉일(金鳳日)은 즉사하고말엇다고한다

黃海道內國防金 一萬八千餘圓

【海州】작년사변이래 해주서(海州署)에서 취급한 국방헌금(國防獻金)은 금년칠월말현재로 일만팔천여원에 달하엿다

經濟強調週間 實施事項協議

【大田】오는이십일부터 경제강조주간(經濟強調週間)을 실시하게되엿다는데 [illegible]

內地視察團 十日無事歸還

【大田】지난달이십칠일충남도교육회(忠南道教育會)주최로 내지시찰단일행은 무사히 지난십일 오후세시반 대전역에도착하엿다

嶺美精米業統制 工場組合을創設

【嶺美】[illegible]

秦奎祥에二年役

【大田】[illegible]

支那人假醫師 罰金五十圓에

【全北支社發】전주부대화정(全州府大和町)에 거주하는 지나인 왕옥정(王玉亭)은 [illegible] 의사라하고 [illegible]

死刑바든吳百根 京城覆審에控訴

【大田】누보한바와가티 충북청주군 낭성면 오백근(吳百根)에대한 강간, 살인, 강도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死刑宣告)를밧고 즉시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 공소(控訴)를 제기하엿다한다

元山支局後援의 關北個人庭球 廿日松濤園에서

【元山】원산청수교청년회 주최 본사원산지국후원의 제사회 관북개인정구대회는 팔월이십일오전십시부터 송도원코―스에서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희망자는 원산해성소학교(海星小學校)에 신청하기를바란다고한다

大連港을大擴充
滿鐵港灣審議幹事會서協議

【大連】만철항만심의간사회(滿鐵港灣審議幹事會)는 지난칠일 오전열시부터 철도총국회의실에서 서촌철도총국수도과장(西村鐵道總局水道課長)이하각 간사 약삼십명출석하에 개최되여 [illegible] 다음과가튼 결정안을 작성하야 [illegible]

一、緊急한施設을要하는事項
(가) 山手野積場擴張及新設에關한件(線路敷設)
(나) 潮見、寺兒溝方面各線에 [illegible] 走行線增設及[illegible]
(다) 第一碼頭[illegible]新設
(라) 入船埠頭荷揚場에「모―다」三基新設
(마) 入船町[illegible]에貨車留置線新設
(바) 南關嶺元町炭場을 [illegible]保管場으로 使用
(사) 寺兒溝、山手兩野積場에 [illegible]

一、第五六埠頭新設까지 實施事項
1、特殊倉庫新設
2、第四埠頭에 立體上屋新設
3、倉庫二棟新設
4、重量貨物取扱하는 野積場에 道路舖設
5、入船三番埠頭[illegible]
6、甘井子에 鋼材棧橋[illegible]
7、馬家屯에貯水場新設
8、香爐礁海面埋立及荷捌場[illegible]
9、寺兒溝油槽增設
10、甘井子石炭[illegible]利用의件
11、補助運搬具의整備

落雷로農夫即死

【安岳】[illegible]

以指導員講習會

【大田】지난구일부터 [illegible] 충남도(忠南道)에서는「가마니」검사소 [illegible] 강습회를 개최하엿는데 [illegible]

돈벌기大王 リート式穀物膨脹機 大阪市北區浮田町九番地 兒島製作所 (電話北3238番)

時計 スイツル 貿易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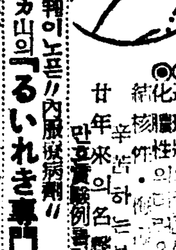
寫眞術 國際寫眞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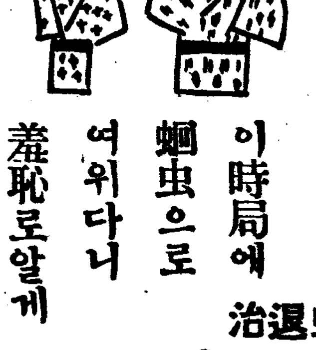
朝報案內

女醫 京城鍾路三丁目

家具

仲居募集 朝鮮料理 國一館

きれいる 注射代用

副作用업고、氣分조코 시원하게되여서 기뻐한다
評判이노픈!!內服療病劑 ワカ山의『るいれき專門藥』
本舖 和歌山市 るいれき專門藥院


이時局에 蛔虫으로 여위다니 羞恥로알게
虫退治 マクニン
마구닌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美이 活할 石비 鹸누

株式會社 吉田久四郎商店

御贈答には あけぼの印 オーロラ印 銃后に相應しい 誠心こめた さけ罐詰

サッポロビール
말하지말라
サッポロ의 佳味를 알지못하고 ビール의 良否를 말하지말라

朝鮮麥酒株式會社

經濟解說 勞働管理政策 ②

現在가장勞働力이 不足되어잇는것은 軍工業及化學工業의 兩部門이다. 一部에서는 勞働者의 爭奪에 苦心하고잇다. 特히 此兩部門은 一方에잇서서 彭大한軍需品의 補給을하는 同時에 他에잇서서는 生產力擴充에熱中하고잇스므로 技術者及勞働者의 獲得에苦心하고잇다.

一例를들면 明春에卒業할工業及鑛業關係의 技術者는約三千五百名인데 需要는이의數倍나되는狀態이다. 따라서技術者需給에對한統制가必要하게되어 政府에서는 去月二十八日의閣議에서 工鑛技術者를 包含한 [illegible]

[illegible]

失業對策

[illegible]

物價抑壓政策으로 京城都賣平均指數反落

昨年十一月以來騰勢遂挫折 比一年前尙二割餘高

鮮銀調査=京城都賣物價指數는 明治四十三年七月의 指數를 一〇〇으로 基準算出하야보면 今年七月의 總平均指數는 二四五·八으로서 前月에 比하야 一分一毛의 低落으로서 調査品目三十種目中 騰貴十六、低落六、保合八인바 이는 重要商品이 價格統制의 結果 顯著히 低落된때문에 이가티 總平均指數가 低落을 示한것이다 이제 前月에 比하야 騰落別을 보면 如左하다

▲昇騰品=玄米、精米、大麥、小豆、粟、和金巾、綿絲、生絲、石油、木炭、松薪、小麥粉、砂糖、再製鹽、金物、洋紙

▲低落品=小麥、大豆、三八紬、纖綿、硫安、牛皮

▲保合品=石炭、醬油、日本酒、麥酒、豆粕、木材、板硝子、燐寸

[illegible]間만에 反落된것이 지난昨年七月指數와比較하면 그래도 總平均이잇서 二割二厘의高位에잇다 이제事變勃發인 昨年七月以來의 指數를보면

昨年七月	二〇四、三二
八月	二〇五、三五
九月	二〇四、一七
十月	二〇四、一四
十一月	二〇八、九六
十二月	二一二、三七
今年一月	二一六、〇一
二月	二一九、一五
三月	二二八、九一
四月	二三三、四四
五月	二四三、八九
六月	二五〇、八五
七月	二四五、八一

以上과가타야 昨年十一月以來 騰貴一途이든것이 비롯오八個月만에 [illegible]

昨年七月比較

◇…騰貴率(廿二品)

石油 四分四厘 石炭 四割九分 木炭 五割 松薪 三割四分 小麥粉 七分 砂糖 三分 醬油 五分 再製鹽 三割五分 日本酒 八分 麥酒 一割一分 玄米 一分九厘 大麥 六割七分 小麥 一割四分 粟 八分 和金巾 十一割四分 綿絲 三割 硫安 四分 木材 六割 金物 三割 板硝子 七分 牛皮 十三割 燐寸 十五割

◇…低落率(八品)

精米 一分七厘 大豆 一割四分 小豆 一割一分 三八紬 二分 生絲 九分 纖綿 四割 豆粕 八分 洋紙 七分

京城電氣의拂込은 將來適當한時期에

京城電氣는 上期末約二百萬圓의借入金을가지고잇는데 下期興業費가 三百萬圓에達하야 一部社內保留金으로써 이것을充하야도 一部資金準備가 必要하므로 結局二百萬圓內外를 借入케로될 모양인데 下期에는 四百萬圓內外의 借入殘高가잇게 從하야拂込徵收의 必要가잇고 通股株主總會에서도 株主로서 그質問이 잇섯는데 會社로서는 直時拂込을徵收할意向이업고 將來適當한時期를選擇하야 拂込을徵收할方針이리라한다

京電下期新規事業 興業費三百萬圓

物資調整으로遂行困難?

京城電氣의 下期興業計畫에對하야서는 東京의株主總會後의重役會에서 協議한結果如左히 決定하고 十日東京으로부터 歸任한武者專務로부터 發表하엿다 下期興業費는 約三百萬圓인데 物資調整의關係上 材料關係로 豫算대로 事業을遂行할수잇슬지자못困難하다한다

一、京城元町變電所新設(四十萬圓)
一、富平變電所新設(十萬圓)
一、永登浦 唐人里 梧柳洞變電所擴張(二十三萬圓)
一、電車五臺의上臺新造(九萬圓)
一、『뻐스』의購入十七臺(十萬圓)
一、電車軌道의延長(昌慶苑에서高商前에至함) 約九萬圓
一、南大門通의電車線路移設(南大門에서京電前에至함)×十五萬圓
一、送電線(和泉町元町間 게ー불連絡十七萬圓 元町鐵道局間八萬五千圓 往十里廣壯間十萬圓)
一、瓦斯의需要增加에 對應하야瓦斯導管二門增設(九萬圓)
一、仁川送電線一萬二千볼트를六萬六千볼트로 强化한結果 仁川大和町變電所를新設(三十萬圓)

京城商組聯懇談會

旣報와가티 朝鮮商工會議所로부터의 宣言聲明의實行協力에接한 京城商工組合聯合會에서는 五日午後三時부터 公會堂에서實行方法에就하야懇談會를開催하기로되엿는데 當日은京城道、京城府、京城商工會議所其他關係方面으로부터多數한臨席者가잇스리라한다

各商工會議所에 協力을慫慂하기로되엿다

商工會議所 宣言實行慫慂

朝鮮商工會議所에서는 對時局關係의商工業에 對하야宣言을聲明하고 그實行에 對하야 全鮮[illegible]

銅使用制限 指定品種目

朝鮮總督府告示第六百六十二號

昭和十三年朝鮮總督府令第百六十號(昭和十二年法律第九十二號第二條의 規定에 依한 銅의使用制限에 關한件)第四條의 規定에 依하야 如左한 物品을指定하고 昭和十三年八月二十五日부터 施行함

昭和十三年八月十一日 朝鮮總督

▲다리미 ▲油濾 ▲安全面刀 及同容器 ▲椅子 ▲犬用金具 ▲印形 ▲印形入器 ▲잉크瓶 (잉크스탠드를包含)▲打掛 ▲腕時計밴드 ▲腕輪 ▲寫眞容器 ▲昇降機(工業用을除함) ▲煙突 ▲鉛筆金具 ▲鉛筆削具 ▲鉛筆 ▲置時計 ▲置物 ▲桶 ▲類의 ▲押板 ▲帶留 ▲오페라글라스 ▲카ー텐金具 ▲카ー드링그 ▲鏡金具 ▲花器 ▲角砂糖挾 ▲카렌다 ▲樂譜臺 ▲傘臺 ▲飾棚 ▲菓子型 ▲菓子器 ▲菓子製造器 ▲家庭用煖爐 ▲家庭用冷藏庫 ▲鞄金具(螺番及錠前을除함) ▲카후스뽀단 ▲釜 ▲지갑金具 ▲髮飾品 ▲紙挾 ▲敷根鈎手 ▲敷遺器 ▲칼라도메 ▲칼라뽀단 ▲칼렌다金具 ▲皮剝器 ▲玩具 ▲觀賞用魚類容器 ▲看板 ▲喫煙用器具 ▲煙管、빠이푸 ▲茶器 ▲라이터、灰皿、담배갑等 ▲鐵靈金具 ▲金庫(手提金庫를包含하고 大金庫를除함) ▲銃(工業用을除外)

漁業及船舶用의것을除함 ▲藥玉裝飾金具 ▲果物容器 ▲靴下止金具 ▲구두주걱 ▲크림포類 ▲化粧品또는 化粧用具의容器(口金을包含) ▲게다또는 草履의裹金 ▲角玉飾 ▲鞋祭物의柱、壁、天井、庇廻等의裝飾金物(格子를包含) ▲文字 ▲格子及펜치 ▲메달 ▲計算器 ▲香水吹金具 ▲交通標識 ▲劍 ▲冰入器 ▲氷挾 ▲香爐 ▲茶碗類及同臺 ▲袴及裳(工業用을除外) ▲삼바리 ▲家庭用金具 ▲足袋止 ▲飯蒸器 ▲罫引用具 ▲高麗 ▲皿 ▲仕切用金物(屛風을包含) ▲自轉車 ▲絞다운人 ▲사진寫眞 ▲十能(종을包含) ▲寫眞機 ▲實牌 ▲賞盃 ▲商品陳列器 ▲便紙函 ▲盆 ▲食卓 ▲盥 ▲寢臺

[illegible]

大阪의朝鮮白米排擊

結局大阪府의自繩自縛? 米穀硏究會 混砂米問題懇談

大阪의 混砂白米의 不賣及小賣價制限은 九月一日부터 大阪府令으로 實施되게되엿는데 對하야 朝鮮內米移出業者는 勿論總督府에서도 事態를 憂慮하고 殺協으로부터는 齋藤幹事長橫山理事總督府에서 吉祀技師鮮米協會에서 菱本理事가各各大阪에出張、大阪府及關係方面에그 實施延期或은 實施中止를 折衝中인바朝鮮側이大阪府令의 實施를不得已하다하여이에 順應한다하여도

一、大阪地方에 移入되는朝鮮白米는年三百萬石程度인데本年은現在大阪의在米가 五十萬石程度로 例年의三分之一에不過하야朝鮮白米가 不賣로流入되지안코면 大阪의米市場에品不足이 생긴다

二、隣接府縣인 兵庫、京都等은 이것을實施하지안흠으로 此等隣接府縣에서 大阪으로 朝鮮白米가 流入된다

三、大阪府가 目標로하는 八分搗米는 實際問題로 標準決定이困難이어 이것은 小賣商의策動이어 等의理由로서 結局大阪府는 自繩自縛의運命에빠질것으로 보여진다 朝鮮米穀硏究會에서는 大阪의[illegible]

昨年纖維作物 一割의增額

生產一千五十四萬圓

桐을除外한 纖維作物의十二年度生產高는

大麻	(四百八十一萬三千五十一貫 六百八十七萬六千三百圓)
苧麻	(十三萬九千五百四十一貫 五十九萬三千二百四十八圓)
靑麻	(五萬七千三百十六貫 三萬七千六百四十一圓)
黃麻	(七百七十貫 七百七十圓)
亞麻	(六十六萬四千八十九貫 十二萬七千九百二十一圓)
棉	(百九十五萬六千六百十五貫 百七十一萬七千八百十六圓)
莞草	(百三十六萬二千八百八十一貫 百二十六萬三千七百九圓)
合計	一千五十四萬七千三百五十九圓

인데이것을 前年에 比하면 九十六萬一千二十六圓即約一割의增加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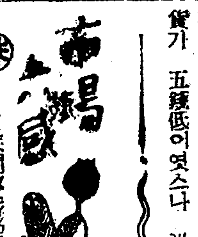
株式 停戰協定 上進

前場反撥 昨後突込해되면 대 今朝는 重光『리』三次會見으로停戰協定을傳하야 刺戟하고 阪東의夜放高를보고當地도 東新百三十四圓一인 三圓四高、鐘紡二百二十五圓五로三圓四高에 反撥寄付하야 高價를續出하엿스나 依然히 高價賣는 戒되고 利喰賣에伸惱되여 結局四圓一로 東新大引

後場續騰 後場은 東新百三十二圓丁인四高、鐘紡二百二十四圓丁인一低로 臨風裡에 寄付後 買氣優勢하야 東新五圓四錢紡六圓三에 續騰大引

漢口陷落期待 失望업도록할열

對蘇不安으로머러지다가는停戰協定으로急騰强調를示한바이것은 漢口가 陷落되면 蔣介石이 降服하리라 降服지안는대도 諸外國의 態度가 一變하야 戰爭이 一段落되리라 豫測으로 너나할것업서人氣가 强氣인때문이다 이가티 漢[illegible]



株……日蘇間停戰協定을傳하야 今朝는 夜放急騰▲昨後場은 東新百三十圓까지 危殆하더니……▲萬人總强氣에對蘇不安이 除去되면 市勢는 上?

▲東京市場에서는 上田實物委員長의『東新上場廢止』論으로 말성이 생기엇다고▲東新을廢止하면 그대신 代位할것이무엇이나 鐘紡에는 鐘紡의 [illegible]

國債堅固

[illegible]

朝鮮米에弱材 小賣價를制限

[illegible]

增資의抑制로 中小會社資金難

[illegible]

期米 開散裡에 保合

前場保合

[illegible]

後場細刻

[illegible]

全혀膠着狀態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正米 新動機待 膠着

京城保合

[illegible]

仁川不動

[illegible]

釜山少高

[illegible]

大邱不變

[illegible]

群山釘付

[illegible]

木浦少高

[illegible]

今日財界 十一日

[illegible]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一六九一 五六一一 三九六

重石 高價買入 東明商會 京城府鍾路二丁目一四 電話光化門③九七六番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商會

株式 期米 玉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海外經濟 十日

[illegible]

銀行券 十日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株式

[illegible]

期米

[illegible]

京城物價 十一日

[illegible]

砂糖

[illegible]

生糸

[illegible]

人絹

[illegible]

棉花

[illegible]

綿糸

[illegible]